백두산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41호 - 주체91(2002)년 5월 25일 (토)　　백두산 편집부

노작발표 10돐 기념보고회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고전적로작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발표 10돐 기념보고회가 2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체81(1992)년 5월 23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에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주체문학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한 정화이고 조선영화의 얼굴이며 세계적인 걸작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기수적역할을 놀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영화의 창작성과를 일반화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밝혀 주시였다.

강능수문화상은 기념보고에서 로작은 선군시대 혁명문학예술창조의 새로운 앞길을 열어 놓은 위대한 선군문예강령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지난 10년간 선군문예부흥의 대전성기가 마련된데 대하여 언급하고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로작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계속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감으로써 기념비적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강성대국건설위업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2002/05/23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노작발표 기념

선군시대 주체문학예술의 화원이 펼쳐 진 빛나는 로정

로작은 주체81(1992)년 5월 23일에 발표되였다. 이 로작은 민족의 운명문제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해명으로부터 출발하여 현 시기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 주고 있다.

론설의 필자는 지난 10년간 주체문학예술은 혁명적수령관이 철저히 구현된 문학예술로 그 위용을 더욱 힘 있게 과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이 모든 문학예술작품마다에 구현되고 혁명적군인정신을 체현한 새로운 성격들이 창조되고 있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령도의 손길아래 태여난 선군혁명문학예술의 근본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론설은 지적하였다. 론설은 선군혁명문학예술건설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형식이 새롭게 탄생한것은 인류문예사적의의를 가지는 커다란 사변이라고 지적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형상의 폭과 예술적심오성을 다같이 최상의 경지에 끌어 올림으로써 21세기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류문학예술의 최고봉으로 빛나고 있다고 론설은 강조하였다.

2002/05/23 조선중앙통신

통일연대, 관훈클럽초청토론회 이회창발언 규탄

6 · 15남북공동선언 훼손하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를 반대한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6.15 선언은 남북정상이 만나 대화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그 원칙과 정신을 살릴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토론회 초반 ≪공동선언 2항은 폐기되어야 한다≫, 토론회 후반 ≪공동선언 2항은 아직 한번도 남북정상간에 지적이 되지 않은 만큼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통일연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6 · 15 남북공동선언을 온갖 방법을 다해 훼손하려는 이회창 한나라당의 후보의 망국적 발언을 엄중히 규탄한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6 · 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었던 2000년 당시에도, ≪6 · 15 남북공동선언은 국민적 합의절차가 없었다≫며 6 · 15남북공동선언 채택을 민족의 경사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6 · 15 남북공동선언실현을 줄곧 방해해 왔었다. 그러나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너무나도 확실한 까닭에 이 선언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개진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대선을 얼마 앞두고 이렇듯 노골적으로 공동선언의 2항을 폐기 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6 · 15 남북공동선언의 핵심을 거세하겠다는 것이며 , 6 · 15공동선언을 거부하며,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라 하겠다. 즉 이회창 후보의 이번 발언은 책임있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서는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도를 넘는 망국적인 발언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연합제와 낮은 차원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하는 방안이 아니고서 도대체 그 어떤 올바른 통일방안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통일연대는 또한 미국추종 대권구걸로 6 · 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거부하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반대한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올해 2월 미국을 방문하여 미 고위인사들과 접촉하며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의 기조인 ≪상호주의≫, ≪투명성≫, ≪ 검증≫을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한미공조 강화를 약속하면서 미국에게 대권을 구걸하는 추태까지 보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회창 후보가 6 · 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6 · 15 남북공동선언 2항에 대해 폐기하자고 한 것이다. 비록 그 발언의 파장이 너무나도 심각한 것을 느끼고 토론회 후반부에 ≪폐기가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살며시 꼬리를 내리기는 하였으나, 이회창 후보야 말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정치를 펴는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미국에게 아부 굴종하는 것밖에는 모르는 친미 매국적인 인간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6 · 15 남북공동선언 실현에 가장 앞장서서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이회창 후보를 반대하는 것이야 말로 통일을 원하는 우리 7천만 민족의 근본사명이기도 하다.

통일연대는 6 · 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장애를 조성하는 그 어떤 흐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밝히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의 이회창 후보의 발언을 망국적 발언으로 규정하고, 이회창 후보를 반대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6 · 15 남북공동선언 훼손하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반대한다!

6 · 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걸림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반대한다!

2002/05/24 통일연대

2 종합
• 36만8,000키로미터 – 주석님의 열차 현지지도와 해외방문
• 조선인민의 기상과 통일염원 한눈에
• 남조선군 도발행위 감행
• 주적론에 대한 북측의 지금까지 입장
• 국방부, 국방백서 발간 연기
• 한나라당 ≪돈잔치≫하던 날 경찰에 짓밟힌 통일인사들

4 노작
•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11)

6 세기와 더불어
• 8장 7절 영생의 꽃(1)

8 칭송
• 새 세기가 밝아온 곳은

9 노동신문 사설
• 과학발전은 사회주의의 전도를 좌우하는 중대사이다

10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김정일동지께서 청소년시기에 진행하신 창작활동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이회창의 사심
• 한나라당 패거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13 투쟁보도
• 통일연대, 북 테러지원국지정 규탄 칼기사건진상규명 촉구
• ≪서민행보≫ 이회창, ≪옥탑방≫ 몰라
• ≪학살의 책임자는 미국이다≫
•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 반대 기자회견 열려

15 운동강좌
•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에 대하여(1)

36만 8,000키로메터

주석께서 렬차로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을 이어 오신 로정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에 리용하신 렬차가 보존되여 있다.

그이께서는 이 렬차로 나라의 방방곡곡을 현지지도하시였고 외국방문의 길을 이어 가시였다.

현지지도의 나날에는 이 렬차에서 일군들을 만나시여 사업을 의논하시고 소박한 식사도 함께 나누시며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또한 주체73(1984)년 5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이 렬차로 6만여리의 로정을 따라 이전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사회주의 나라들을 방문하시였다.

주석께서는 렬차에서 외국의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진보적인사들을 만나시여 세계혁명과 인류의 자주화위업의 앞길을 밝혀 주시였으며 잊을수 없는 연고자들과 감격적인 상봉도 하시였다.

이 나날 일군들이 숙소에서 편히 쉬실것을 간청할 때마다 주석께서는 이 렬차는 자신의 집이고 집무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주석께서 주체34(1945)년 9월부터 주체83(1994)년 7월 초까지 렬차로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을 이어 오신 로정은 36만 8,000키로메터에 달한다.

2002/05/23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의 기상과 통일염원 한눈에 안겨와

≪아리랑≫을 본 외국인사들이 감탄 표시

지금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한 외국인들속에서는 커다란 반향이 일어 나고 있다.

일본 비쥬알 훼크로아주식회사 대표취체역 기따무라 미나오는 ≪아리랑≫공연을 세번이나 보았다고 하면서 보면볼수록 황홀경에 넋을 잃는다고 말하였다.

공연에 참가한 출연자들의 긍지와 행복에 넘친 표정이 인상적이라고 하면서 그는 공연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여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떨쳐 나선 조선인민의 기상과 통일념원이 한눈에 안겨 온다고 지적하였다.

홍콩 제이.피.엠 인터나쇼날회사 회장 필리프 드레스너는 ≪아리랑≫공연에서 제일 인상 깊은것은 통일장이라고 하면서 이 장은 피줄도 하나, 민족도 하나, 문화도 하나, 력사도 하나라는 조선인민의 통일념원을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영국 위네쉬주식회사 사장 콜린 울버손은 자기 일생에서 ≪아리랑≫과 같이 기적같은 공연을 처음으로 보았다고 하면서 그 어디에 가서도 이런 공연은 다시 보지 못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말레이시아 더바브회사 부장 팡테나 케앙은 ≪아리랑≫은 예술적으로 아주 걸작중의 걸작일뿐아니라 그 내용의 심오성에 있어서도 완전무결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일심단결된 힘으로 자기 조국의 존엄을 힘 있게 떨쳐 나가는 조선인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민이라는 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2002/05/24 조선신보

남조선군, 도발행위 감행

군사분계선 대밑에 땅크 1대 끌어 들여

군사소식통에 의하면 22일 남조선군이 우리의 면전에서 땅크를 기동시켜 군사분계선 대밑에 끌어 들이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날 남조선군은 짙은 안개와 흐린 날씨를 리용하여 전선동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1105호 근처에 땅크 1대를 끌어 들였다.

그리고 23일에는 이미 끌어 들인 땅크를 우리측에서 감시하기 좋은 둔덕에 올려 세워 놓고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민군군인들을 자극하는 망동을 부렸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6.15북남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배신행위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번 중무기반입사건에서 책임 있는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하며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2002/05/23 조선중앙통신

주적론에 대한 북측의 지금까지 입장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주적론≫이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본격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12월4일 국방백서 발표 이후이다.

조지 W. 부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클린턴행정부의 대북한 평화프로세스가 중단되는 싯점에 남측은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한 2000년 국방백서를 발간했고 북측은 이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 2001년 6차 장관급회담 때(11.8~14) 남측 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이 주적론 유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자 북측은 홍 장관 교체를 요구할 정도로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이보다 열흘 뒤 남측이 매년 발간하던 국방백서를 격년제로 발간키로 하고 결정하자 북한은 주적론 유지 의도라며 또 다시 맹렬히 비난하고 나왔다.

이런 전례에 비춰볼 때 남측이 24일 국방백서 발간 ≪무기 연기≫를 결정하면서 ≪주적개념 유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데 대해 북측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주적론과 관련해 그동안 북측이 보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제3차 남북군사실무회담(2000.12.21) = 판문점에서 열린 3차 군사실무회담에서 조선인민군대표단 단장인 유영철 대좌는 ≪2000년 국방백서는 대화 상대방인 조선(북)을 주적으로 삼았다≫며 ≪이는 쌍방이 이미 달성한 여러가지 협의와 어긋나는 것으로 쌍방 군대의 전면적인 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북)측은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면서 ≪주적론은 냉전시대의 대항관념을 반영한 것으로 남북관계를 (6.15선언 이전의) 대결 국면으로 되돌아 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방송(2001.11.24) = 조선중앙방송은 ≪시사논단 논평≫에서 ≪2002년 5월부터 격년으로 발행하게 될 남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기로 한 것은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며 ≪남조선 군사당국자들에게 통일할 의사란 전혀 없으며 오직 북남사이의 군사적인 대결과 전쟁열을 고취해서 북침을 감행할 야심만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양방송(2001.11.29) = 평양방송은 ≪대결의 찬바람을 몰아오는 주적론자들≫이라는 제목의 보도물에서 ≪지금 남조선에서는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성하는 반(反)공화국 적대시 책동들이 집요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남한 군부와 우익보수세력을 ≪반통일세력≫이라고 비난했다.

방송은 또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이 ≪주적론≫을 언급했다며 ≪현실은 주적론을 부르짖으며 대결을 고취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자주 통일위업을 계속 전진시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2002.1.4) =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남측이 2000년 12월에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조선(북)을 주적이라고 제기한 것은 새로운 대결을 유발했으며 남북대화와 협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하나로 되었다≫고 밝혔다.

강진욱 기자
2002/05/24 연합뉴스

국방부, 국방백서 발간 연기

국방부는 5월말로 예정된 2002년판 국방백서 발간을 연기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주적(主敵)표현 유지 입장을 강조해온 국방부가 백서 발간을 연기한 것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현 정권에서는 사실상 발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추정돼 주적 표현 삭제 주창자들과의 논쟁이 예상된다.

황의돈(黃義敦) 대변인은 이날 낮 브리핑을 자청해 ≪국방백서 내용 가운데 특정표현(주적개념)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며 ≪백서 발간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대변인은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이 앞서 23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백서발간 연기방침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진보개혁 세력은 사실상 주적 표현을 폐기한 것으로, 보수세력은 주적 표현을 유지한 것으로 상반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논란이 재현될 지 주목된다.

1988년이후 매년 백서를 발간해온 국방부는 주적 표현 관련 논란이 가열되자 지난해말 백서 발간을 격년제로 바꿔 당초 이달말 발간하기로 1차 연기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의 정부를 마감하기 전 그동안 국방업무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서를 (대신) 발간할 계획≫이라며 ≪해당 문서에 주적 표현이 포함될 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문관현 기자
2002/05/24 연합뉴스

한나라당, 《돈잔치》 하던 날, 경찰에 짓밟힌 통일인사들

한나라당이 24일 오후 중앙당 대강당에서 인기연예인과 정재계 인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회 행사를 벌이고 있을 때, 당사 앞 버스정류장에서는 경찰이 통일단체의 기자회견장을 짓밟는 초법적인 공권력 남용행위가 발생했다.

이날 경찰은 《이회창 후보의 6.15공동선언 파기발언을 사과하라》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장에 난입, 참가자들을 연행하고 기자들의 취재행위를 막는 등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현장을 취재중이던 《통일뉴스》송정미 기자와《디지털 말》본 기자의 사진촬영을 막고, 강제로 연행해 30분간 감금하기까지 했다.

다음은 기자가 이날 직접 체험한 현장상황을 시간별로 정리했다.

오후 2시

통일연대등 시민사회단체 소속 참가자들은 6.15 공동선언에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자청, 엠프와 현수막을 펼쳐들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2일 관훈클럽 기자회견에 초청된 이회창 후보는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합의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의 2항을 파기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시간, 기자회견장 주변에서 중년의 한 남자가 모처로 전화를 걸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었다. 《영등포 경찰서장하고 2번이나 통화했는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도 되는 거야.》

기자는 《기자회견을 처리(?)해 달라》는 민감한 요청으로 파악돼 이 남자에게 《어떻게 되시는 분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남자는 《한나라당 관계자》라고 대답하고는 직책이나 이름은 끝내 밝히길 거부했다. 기자가 보기엔 이 관계자는 오후 3시부터 열릴 중앙당 후원행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오후 2시 10분

경찰과 기자회견 참가자들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측은 《집회신고가 안 됐다》며 행사를 허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므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항의했지만 경찰측은 《나는 책임자가 아니며 시키는대로 할 뿐이다》는 답변을 했다.

곧이어 경찰은 현수막, 피켓, 엠프등을 강제로 빼앗기 시작했으며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김이경 통일연대 사무처장등 9명이 연행됐다. 연행자 중에는 통일뉴스 송정미 기자도 포함돼 있었으며 송 기자는 기자증을 내밀며 취재중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의해 강제로 경찰버스에 태워졌다.

오후 2시 30분

한나라당 중앙당 후원행사를 위해 고급승용차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당사앞 버스정류장에서는 경찰이 방패를 동원해 둥글게 장벽을 치고 있었으며 연행되지 않은 참가자들은 외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연행되지 않은 참가자들은 범민련 이종린 의장등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 이들은 제자리에 앉아 연행자 석방을 요구했다.

오후 3시 10분

한나라당 10층 대강당은 당사밖의 소란에 아랑곳없이 후원금 모금을 위한 한 판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날 행사의 사회를 맡은 박원홍 홍보위원장은 《후원금을 주실 분들은 연락만 달라. 내가 직접 (돈을) 배달하겠다. 아마 배달사고는 없을 것》이라며 얼음장같은 농담을 건네고 있었다.

이어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등장했다. 이 후보는 《6.15 공동선언 파기》발언을 사과하라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정말 엉뚱한(?) 사과를 했다.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나라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돈을) 보태달라고 부탁하는게 대단히 송구스런 마음이 듭니다.》

오후 4시 15분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는 참가자들과 경찰간에 또 한번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행사와 노골적인 취재방해가 더욱 극심해졌다. 통일뉴스 송정미 기자는 재차 연행됐으며 이 장면을 촬영하던 본 기자도 심한 욕설을 듣고 강제 연행됐다. 물론 기자신분을 밝히고 기자증을 제시했음에도 막무가내 였다.

오후 4시 45분

30분간 연행돼 있던 기자는 어디선가 《야, 기자 풀어줘라》는 무전이 날아오는 소리를 듣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아직 어린애들이라서 뭘 잘 몰랐다》는 일선 지휘관의 변명도 뒤 따랐다.

오후 5시

갑자기 외국인이 나타나 경찰과 싸우기 시작했다. 경찰은 낯선 이방인의 등장에 곤혹스러워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미국 웬스민스터대학 사회학 조지 카치야피카스 교수였다. 《민주가 어딨어?》 그가 방금 배운 한국말로 경찰을 밀어붙이며 거칠게 항의하자 경찰은 어쩔줄 몰라하는 눈치였다.

그는 대학에서 한국민중항쟁을 연구하고 이번에 전민특위 국제 조사단(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살에 관한 조사단)의 일원으로 방한한 터였다. 미군철수 구호를 외치는 이 미국인은 《미국은 범죄국가다》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오후 6시

한나라당 중앙당 후원회가 끝나고 정재계 거물들이 빠져나갔다. 그제서야 경찰은 참가자를 에워싸던 방패장벽의 한쪽을 허물었다. 현장 상황으로 볼 때는 한나라당의 후원회와 통일단체 인사들의 연행, 노상감금, 취재방해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진행된 것으로 보였다.

당초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던 기자회견이 다시 간략하게 진행됐다. 범민련 이종린 의장은 《이회창 후보는 7천만 민족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민중연대 오종렬 의장은 《6.15공동선언 폐기발언은 반민족적 발언》이라며 《대통령후보직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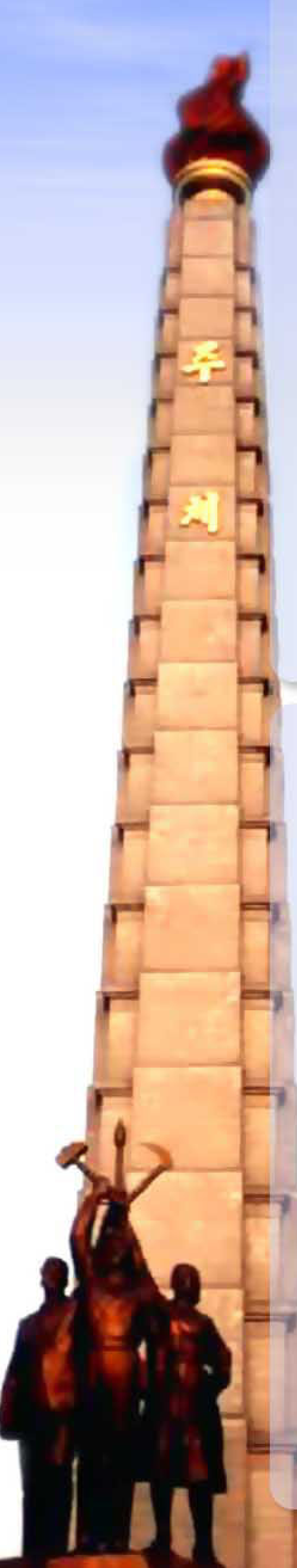
같은 시각, 영등포 경찰서에 연행됐던 김이경 통일연대 사무처장 등 8명은 《진술서를 쓰면 훈방하겠다》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불법연행의 책임을 물어 경찰서장이 직접나와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오늘 일을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며 《연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2002/05/24 디지털말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11)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 주체69(1980)년 10월



5. 당사업을 강화하자(2)

간부대렬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간부들을 선발배치하는 것은 간부사업의 첫 공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간부들을 등용하는 데 그치고 교양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간부자리를 벼슬자리로 여기면서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릴 수 있으며 나중에는 낡은 사상의 영향을 받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늘 혁명적 단련이 부족한 젊은 간부들이 간부대렬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정은 간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 데 따라 늘어나는 간부수요를 원만한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후비간부양성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간부양성기관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간부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조직들을 현직일군들 속에서 간부후비를 장악하고 실지사업을 통하여 그들을 간부로 키우는 한편 중요한 공장, 기업소들과 우수한 협동농장들을 간부양성기지로 꾸리고 거기에서 후비간부를 많이 키워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당성단련의 중요한 방도입니다. 당생활을 강화하여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그들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키울 수 있으며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당성이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입니다. 그것은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 자각이며 당을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고상한 혁명정신입니다. 당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생 동안 끊임없이 당성을 단련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 나갈 수 있으며 당과 혁명에 끝까지 충실할 수 있습니다.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여야 합니다. 당조직을 어머니 품과 같이 여기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는 것은 우리 당원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입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높은 정치적 자각을 가지고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 데서 당세포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세포는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생활의 거점입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바로 당세포에 맡겨져 있습니다. 당세포들은 당생활을 철저히 정규화하고 당원들을 당생활에 빠짐없이 참가시키며 당적 분공을 옳게 조직하여 모든 당원들이 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하겠습니다.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광범한 군중은 당의 계급적 및 사회적 지반입니다. 군중을 떠난 당이란 있을 수 없으며 군중을 묶어세우지 못한 당은 위력할 수 없습니다. 군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광범한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우는 여기에 우리 당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각계각층 군중들과의 사업을 계속 잘해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 데 선차적 힘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의 계급적 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기본계급 속에서 당의 역량을 끊임없이 확대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 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 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성분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현상이 변하듯이 사람의 성분도 사회가 발전하고 환경이 달라지는 데 따라 변합니다. 해방 후 35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처지는 근본적으로 개변되였으며 그들의 사상정신적 풍모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지난 날의 계급적 처지나 경력만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상상태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지난 날의 계급적 처지와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당과 혁명에 충실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진심으로 믿어주고 대담하게 포섭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 세워야 합니다.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근로단체들의 기본임무는 동맹 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동맹원들을 사회주의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것입니다. 직맹, 농근맹, 사로청, 녀맹 조직들은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동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동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사상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은 정치적 조직이며 사상사업은 당의 기본임무입니다. 당조직들은 언제나 사상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하며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당사상사업 부문 앞에 나서는 첫째가는 과업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당조직들은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당조직들은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당조직들은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남아 있는 온갖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모두 다 참다운 혁명가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당사상사업 부문에서는 선동사업을 강화하는 데도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사회주의건설장들과 모든 혁명초소들에서 선동사업을 기동성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적극 불러 일으키며 그들을 창조와 혁신에로 힘있게 고무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적극 불러 일으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는 것, 이것이 오늘 당사상사업 부문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기본과업입니다. 당사상사업의 모든 내용은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일관되여야 하며 사상교양의 수단과 방법도 이것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합니다.

오늘 당사업에서 내세울 중요한 과업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고수하며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 요구입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주체의 혁명전통입니다.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해방 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되였으며 그 과정에 더욱 발전풍부화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있으며 우리 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풍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여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 끝까지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당의 혁명업적을 굳건히 고수하고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완성되는 력사적인 위업입니다. 장기성을 띠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구현하며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수행됩니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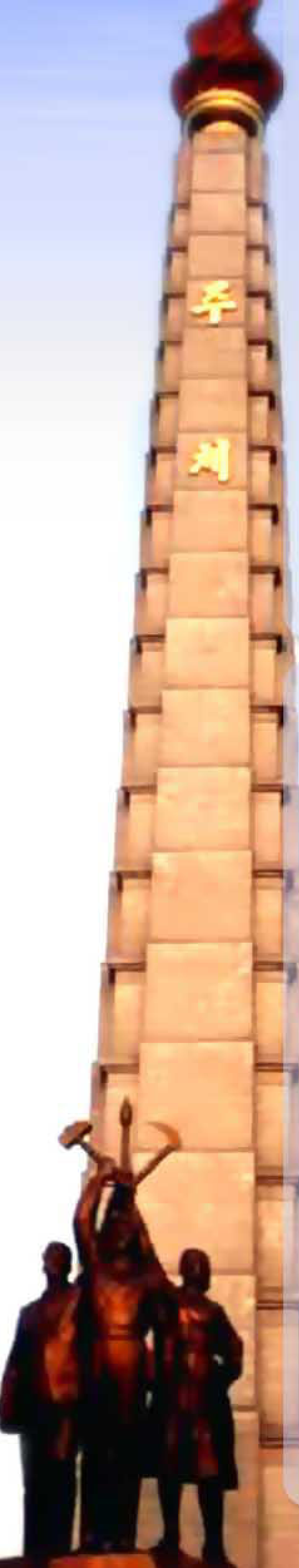
오늘 우리 나라에서 혁명의 세대가 바뀌는 현실을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더욱 절실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당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입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전통을 철저히 구현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는 당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는 정치적 지도이며 정책적 지도입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정책을 해설 침투하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발동하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나타난 결함들을 제때에 고쳐주는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 먼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현 시기 우리 당 앞에 나서고 있는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오늘 우리의 당사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기 위한 데로 지향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도 바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낯을 돌려야 하며 모든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을 힘있게 밀어주며 경제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경제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경제일군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본위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금 경제일군들 속에서 본위주의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본위주의는 개인주의의 변종이며 공명주의의 한 표현형태입니다. 본위주의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명예와 출세를 위하여 일하는 공명주의자입니다. 당조직들은 경제 일군들 속에서 본위주의를 반대하는 일대 사상전을 벌림으로써 그들이 당적, 국가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혁명의 전반적 리익을 위하여 책임적으로 일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정권 기관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는 것은 인민정권기관들의 숭고한 의무입니다.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들이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조건을 잘 보장하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인민정권기관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법 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국가의 법질서를 어기는 현상들과 강하게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가경제 기관 지도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법 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하며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는 데서 군중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입니다. 우리는 인민군대 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인민군대가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 안의 당조직들은 군사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군인들의 전투도덕적 품성과 군사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부대의 전투력과 전투준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혁명군대이며 따라서 그 위력을 강화하는 기본방도는 정치사상사업을 잘하는 데 있습니다. 인민군대 안의 당조직들은 정치사상면에서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며 대오 안에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규률을 세우고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의 지휘관들과 정치 일군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부대관리를 더욱 잘하며 힘을 합쳐 부대 앞에 나서는 모든 군사정치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사회안전기관들과 사법, 검찰기관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의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부대관리를 더욱 잘하며 힘을 합쳐 부대 앞에 나서는 모든 군사정치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사회안전기관들과 사법, 검찰기관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도, 시, 군 당위원회들과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들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당 안에서 민주주의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으며 당 활동에 당원 대중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당위원회들은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집행대책을 세우며 일단 토의 결정한 문제는 철저히 집행하는 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일군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을 지도하는 당의 당일군은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알고 과학기술도 알아야 하며 문화적 소양도 높여야 합니다. 모든 당일군들은 정력적으로 학습하여 높은 정치적 안목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능력있는 일군으로 자신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 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일찍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 창조되였으며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사업방법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철저히 지키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

당조직들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과 혁명적인 대중지도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일군들이 늘 군중 속에 들어가 사업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조직들은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모든 사업에서 사람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첫 공정으로 하며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을 앞세워 광범한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움직이고 발동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늘 아래에 내려가 아래 일군들을 친절히 가르쳐주고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하며 군중과 같이 생활하면서 당정책 관철을 위한 방도를 찾고 군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당일군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참다운 충복입니다. 당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는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가져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절대로 세도를 쓰지 말고 틀을 차리지 말아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이 생활하는 대로 소박하고 겸손하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군중을 존경하고 너그럽게 대하며 군중과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는 군중의 친근한 동지가 되고 벗이 되어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의 당일군답게 안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당 앞에 나서고 있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시작된 우리 혁명은 지난 반세기 동안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발전과정은 주체사상을 현실에 구현하는 과정이였으며 주체사상의 전면적 승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이였습니다. 우리 혁명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는 주세사상이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정세는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의 주체적인 혁명력량은 날을 따라 장성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혁명의 원쑤들은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세는 락관적이며 우리 혁명의 전도는 양양합니다.

우리 당은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새로운 투쟁강령을 내놓았습니다. 당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강령은 전체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고 그들은 영웅적 투쟁과 빛나는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대회가 내놓은 혁명로선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하루빨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며 가까운 앞날에 주체위업을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당의 혁명로선을 관찰하기 위하여 더욱 용감하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정당하여 우리 조국의 미래는 휘황찬란합니다.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정당한 혁명위업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은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주적 평화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3권 제8장

반일의 기치높이

1. 이광
2. 오의성과의 담판
3. 동녕현성 전투
4.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논함
5. 마촌작전
6. 밀림속의 병기창
7. 영생의 꽃

7. 영생의 꽃(1)

김금순

1933년이었다.

왕우구 혁명조직에서는 상급의 조치에 따라 북동아동단학교 학생들인 김금순이와 김옥순이를 소왕청에 파견하였다. 두 소녀는 연길지방 인민들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던 재능있는 유희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조직으로부터 혁명군중이 많이 집결되어 있는 왕청 일대에 가서 근거지 인민들에게 노래와 춤을 보급하라는 과업을 받고 마촌에 왔다. 그 당시 동만지방의 혁명조직들은 인재들을 자주 선발하여 조선혁명의 책원지로 된 소왕청으로 끊임없이 보내주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이 평양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는 것처럼 동만지방의 인민들도 소왕청을 위해서라면 어떤 형태의 지원이든지 다하였다. 마촌에 도착한 후 두 소녀는 나를 만나려고 동행한 북동아동단학교 관리원의 안내를 받아가며 곧장 군부로 찾아왔다. 만나고 보니 그들은 10살 안팎의 애어린 소녀들이었다. 우리는 처음에 그들을 자매간이라고만 짐작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남남이었다. 그저 이름이 어슷비슷하였을 뿐이다. 동행한 북동아동단학교 관리원은 내 앞에 두 소녀를 차례로 내세우고 그들의 경력과 집안 내력을 재미나게 소개해주었다. 그 소개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관리원이 김옥순의 경력을 말할 때 김옥순 자신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 하였다. 그가 걸어온 13살이라는 짧은 인생이 너무나도 큰 비극으로 얼룩져있었던 것이다. 김옥순은 9살 때 20살이 넘는 지주의 아들과 혼약을 맺었다. 그것은 본인도 모르고 부모들도 모르게 사기적인 방법으로 맺어진 혼약이었다. 20살이 넘으면 남자도 노총각이라고 그런 자식을 둔 부모들은 등이 달아서 중매꾼을 내세워 신부감을 물색하던 세월이었다. 총각이 20살이 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도 여자의 아버지에게 술을 몇 사발씩 퍼먹이고 만취된 다음 손을 끌어당겨 문서장에 도장을 찍는 식으로 혼약을 성급하게 날조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그 총각은 분명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장가를 가기 힘든 부실한 청년이었거나 병신이었던 것 같다.

그 문서장에 의하면 김옥순은 15살이 되는 해에 신랑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문서장에 그런 강도적인 조항이 씌여있는 것도 모르고 이틀 동안이나 빈사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다. 술에 만취되었던 그는 집에 실려와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주머니에서 자기의 지장이 찍힌 약혼문서와 출처불명의 돈 80원을 발견하고는 통곡하였다. 그 80원은 딸을 지주집에 시집보내게 되는 대가로 신부될 측이 신랑될 측에게서 받는 선사금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옥순이는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딸의 운명을 한 장의 문서장으로 결정해버린 그의 아버지 김재만 자신은 얼마 후 80원의 선사금으로 초가집을 사고 텃밭을 사고 소와 돼지를 사서 묵묵히 생계를 꾸려나갔다. 강약이 부동이라고 항변했대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 이왕이면 주머니에 굴러들어온 돈을 밑천삼아 화를 복으로 만들어보겠다는 태도였다. 딸이 자기의 장래를 생각하며 훌쩍거릴 때마다 김재만은 이런 말로 그를 달랬다.

≪얘야, 울지 말아라. 그 80원이 그래두 다 망하게 된 우리 집을 살렸다. 어쨌든 굶어죽기보다야 낫지 않겠니. 너 하나의 혼약으로 다 죽게 된 부모형제들을 살렸다고 생각하면 슬픈 마음도 가라앉을 게다.≫

부식하고 순박한 그는 혁명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사람이 누구든지 부지런하게 손발을 놀리면 가난을 이겨낼 수 있고 지어는 백만장자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천진난만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착취하는 지주들에 대해서도 환상을 가졌다. 그 지주는 드문히 옥순이네 집에 먹을 것을 가져다주었다. 그래서 김재만은 세상에 자기네 지주처럼 고마운 지주는 없다고까지 여기게 되었다. 한번은 옥순이가 학교마당에 가서 지하공작원의 연설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재만은 딸을 외양간에 묶어놓고 온몸에 굴뱀이 질 때까지 사정없이 매를 때렸다. 딸이 혁명에 발을 담그게 될까봐 겁났던 것이다. 김재만이 계급적으로 늦게나마 각성된 것은 다섯차례에 걸치는 적의 ≪토벌≫에 마음이 잿더미가 된 다음부터였다. 옥순이네도 그 ≪토벌≫에 집과 역축을 죄다 잃고 말았다.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는 불에 타죽은 사람들도 있었다.

≪옥순아. 이제는 놈들이 망하든지 우리가 망하든지 사생결단을 해야겠다. 아버지는 세상을 너무도 몰랐다. 이제는 너희들이 혁명을 해서 저 악귀같은 무리들을 모조리 쓸어버려라.≫

딸을 왕우구유격구역으로 떠밀어보내던 날 밤 김재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후 김옥순은 송림동에 있는 김금순이네 집에 거처를 정하고 금순이와 함께 북동아동단학교에도 다니고 구유희대, 현유희대에 망라되어 군중계몽활동도 하였다. 조선의 아이들은 옥순이처럼 부모들의 곁에서 응석이나 부리고 투정질이나 할 어린 나이에 벌써 민생고를 타개하기 위한 멍에를 걸머지고 생활전선에서 허덕였다. 세월의 난파는 성년, 미성년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 어린이도 몰라보는 세상, 아이들에게도 어른들과 똑같은 등짐을 걸머지우는 악착한 세상에 항거하여 우리의 소년들은 투쟁에 궐기하였다. 간도지방의 조선소년들은 도처에서 아동단, 소년선봉대, 소년탐험대와 같은 혁명조직들을 뭇고 조직된 역량으로 싸움의 마당에 뛰어들었다.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해 교양되고 단련된 우리의 모든 소년소녀들은 항일혁명을 움직이는 하나의 당당한 치차가 되고 나사못이 되었다.

김옥순, 김금순이도 그 치차 중의 한 치차였고 그 나사못 중의 한 나사못이었다.

나는 김옥순의 경력을 듣고 측은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그의 청초한 모습 속에 비껴있는 한 가닥의 불행은 조선의 수백만 어린이들이 당하고 있던 불행의 축도였다. 하지만 혁명을 하겠다고 어린 나이에 벌써 집을 떠나 유격근거지로 찾아들어온 그 결의와 기개야말로 얼마나 장하고 떳떳한가. 오늘은 또 소왕청을 지원하려고 왕우구, 다홍왜, 요영구, 마촌 노정을 따라 수백리 길을 걸어왔으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어른들이나 신고 다니는 지하족을 발에 걸치고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막대기로 덤불길을 헤치며 허위단심 소왕청으로 찾아온 두 소녀가 내 눈에는 몹시도 기특하고 대견스러워 보였다.

≪누가 너희들을 소왕청으로 보내더냐?≫

나는 저 지하족을 운동화나 고무신으로 바꾸어주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 소녀에게 물었다.

≪윤병도선생님이 보냈습니다.≫

두 소녀는 치마말기에 두 손을 가져다 붙이고 몸가짐을 가다듬으며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눈빛도 별처럼 초롱초롱했지만 목소리도 정신이 번쩍 들게 또랑또랑하였다. 나는 기분이 매우 흡족해졌다.

아이들과의 친교는 사실 나의 생활에서 하나의 큰 낙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통과 고뇌를 씻어주는 하나의 강력한 세척제라고 말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동심 속에 잠겨보라. 그러면 그대는 생에 대한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린것들로 하여 인류의 생활이 더 아름답고 다채로워진다는 것과 그들의 눈망울에 차넘치는 이상을 꽃피워주고 지켜주는 것이 성스러운 사명임을 가슴이 부풀도록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얼굴과 종다리에 긁힌 자리가 여러 군데 나 있는 금순이의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워 이런 질문을 하였다.

≪먼길을 오느라고 수고했다. 큰 고개란 많았겠는데 넘기가 힘들지 않더냐?≫

≪발이 부르터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데리고 온 아저씨가 왕우구로 되돌아가라고 할까봐 힘들지 않은

체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부모님들 곁에 있으면 더 좋지 않니.≫

≪좋기야 좋지요 뭐. 그런데 언제 어른이 되겠나요. 어른이 되자면 고생을 많이 해봐야 한다구 아동단 지도원 선생님두 말씀해주셨는데.... 난 고생을 많이 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른이 그렇게 빨리 되어선 뭘하니?≫

≪조선을 독립해야지요. 김대장 아저씨. 무슨 일이 있어두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나는 금순이의 어른스러운 사고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조선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려는 그의 각오는 사상적으로 매우 조숙한 것이였다.

≪응. 그건 걱정말아라. 간도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재간둥이들이 굴러들어왔는데 왜 돌려보낸단 말이냐. 이제부터는 우리하고 같이 왕청에 있자. 여기서 아동단 생활을 하는 게 괜찮아.≫

금순이는 그 말을 듣자 기쁨을 참지 못하고 손뼉을 마주쳤다. 나는 현과 구의 공청지도 일군들에게 두 소녀를 마촌아동단 학교에 편입시키고 아동단 조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부모의 슬하를 떠나 생소한 고장에 온 그들이 마음놓고 침식을 할 수 있는 무던한 집들에 숙소를 정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왕청의 군대와 인민은 마촌아동단학교 운동장에서 그해 5.1절을 크게 쇘다. 5.1절 행사에는 왕청지구의 군대들이 다 무였다. 왕우구에서 온 두 소녀는 그날 달리기와 높이뛰기에서 각각 1등을 하여 왕청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금순이는 나이에 비해 몹시 체소했다.

그가 유희대의 선두에서 배낭을 메고 발을 재게 놀리며 달랑달랑 걸어갈 때면 그 순결하고 재롱스러운 모습 앞에서 누구나 다 웃음을 짓곤 하였다. 나 자신도 그의 모습에서 많은 힘을 얻었다. 나는 원래 생활을 비관적으로 감수하는 사람들보다도 낙천적으로 감수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였다. 우리가 산에서 풀뿌리를 우려먹으며 어려운 무장투쟁을 하던 그 시기에는 한 명의 낙천가가 몇십 문의 대포와 맞먹는 힘을 냈다. 금순이는 그 당시 당, 공청, 아동단의 3대 동맹에서 제일 어린 세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투사였고 낙천가였다.

금순이를 만난 며칠 후 나는 지휘부에 마촌아동단학교 아이들을 불러 그들의 생활형편을 요해하였다.

원래 아동단원들은 배낭 속에 일주일 분의 식량을 상시적으로 휴대하고 다니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배낭검열을 당한 아동단원들 속에는 학교에서 내준 미시가루를 먹어버린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금순이만은 한 숟갈도 다치지 않고 일주일 분을 그대로 고스란히 간수하고 있었다.

≪다른 애들은 다 먹어버렸는데 우리 막내가 참 용케 참아냈구나. 금순이가 제일이다!≫

나는 배낭검열을 끝내자 엄지손가락을 쳐들어 보이며 금순이를 크게 칭찬하였다.

금순이는 수줍은 듯이 웃기만 하다가 이런 말을 하였다.

≪나두 미시가루주머니를 몇 번이나 꺼냈다 넣었다 했는지 몰라요. 먹고 싶은 걸 겨우 참았지요 뭐.≫

≪어떻게 참았느냐?≫

≪다른 애들이 미시가루를 먹을 때 난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그래두 먹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지요. 밖에 나가두 먹구 싶으면 우물에 가서 물을 한 드레박 마시고 오곤 했습니다. 그럼 미시가루를 먹은 것만치니 배가 불렀거든요.≫

나는 금순이의 유창한 대답을 듣고 다시 한번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눈물겨운 동심 속에는 유격구 인민들이 당하고 있는 경제적 궁핍이 그대로 집약되어 있었으며 그런 궁핍 속에서도 억척스레 혁명을 개척해나가는 어린 불사조들의 넋이 격조높이 고동치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아이들에게 10고뿌의 미시가루와 강냉떡을 나누어주고 배낭 속에 성냥도 넣어주었다. 며칠 후에는 새 솜옷과 솜이불에 신발, 공책, 연필까지 합쳐 두 달구지나 되는 필수품들을 아동단학교에 보내주었다. 싸움이 잦은 때여서 우리에게는 적들을 치고 노획한 전리품의 예비가 적지 않았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귀한 때였으니 우리는 그 예비의 많은 몫을 늘 아동단학교에 돌리곤 하였다.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되고 있지만 남의 나라 땅에서 곁방살이를 하던 그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이 원칙의 요구에 따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었다. 아이들이 먹고 입고 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부대를 출동시켜 전투까지도 서슴없이 조직하곤 하였다.

우리는 아동단 앞에 ≪조선의 독립과 전 세계 무산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그들을 애국주의 사상,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였다. 아동단원들은 군중계몽, 연예활동, 보초근무, 통신연락, 적정탐지, 무기탈취, 유격구 방위를 위한 투쟁에서 실로 어른들에게 못지 않은 위훈을 세웠다. 적의 토벌에 불타버린 귀틀집들을 다시 일떠세울 때에도 우리는 일터에서 언제나 아이들을 볼 수 있었으며 근거지를 사수하는 방위전의 불바다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며 혁명군의 참호에 주먹밥을 들고 뛰어오던 어린 수리개들과 맞다들 수 있었다. 농사철이면 그들이 밭에 가서 김도 매고 가을걷이도 하였다. 어떤 때에는 산과실을 따다가 유격대 병실에 보내주기도 하였다. 언제인가 나는 뾰족산 중앙보초대에서 전방보초근무를 서고 있는 아동단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목격한 일이 있다. 허리에 묵직한 작탄을 한개씩 찬 그들은 1.5미터 정도의 길이를 가진 장대 끝에 쇠붙이를 붙인 창을 들고 보초를 서고 있었다.

박길송

보초교대는 한시간에 한번 한다고 하였다. 성냥가치 두개를 합친 것만한 크기의 향에 불을 붙여 그것이 절반 가량 타면 교대를 하곤 하였다. 향이 전부 타는 시간이 두 시간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독특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아이들이 한번은 겹으로 된 조선바지, 저고리와 대님, 회색양단조끼, 승마바지, 구두, 장화, 검정고무신을 일식으로 갖추어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그것은 우리가 아동단학교에 전리품들을 여러 번 보내준 데 대한 보답이였다. 우리는 그 당시 일본침략군의 수송대를 치고 노획한 조선사과도 아동단원들에게 모조리 선물하였다. 유격근거지 아이들 가운데는 이국 땅에서 태어나 조선에 한번도 가보지 못하고 조국의 사과조차 구경하지 못한 아이들이 수두룩하였다. 유격대원들이 노획한 조국의 사과를 상자째로 가져다주었을 때 아동단원들이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절절한 감사의 정에 사무쳐있었는가에 대하여 이 일화의 산 증견자이고 직접적인 체험자인 김옥순은 자주 뜨겁게 회고하였다.

박길송 아동국장은 어느날 아동단학교에 찾아가 이런 말을 꺼냈다.

≪얘들아. 김대장 선생님께서 우리를 친자식처럼 끔찍히 사랑해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사랑을 받기만 하고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 김대장 선생님에게 우리의 성의를 조금이라도 표시해야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들 해보아라.≫

아동국장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금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은 옷을 해드리자요. 대장 선생님은 글쎄 추운 겨울에도 홑옷을 입고 계신다지 않아요.≫

박길송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금순이가 방금 좋은 옷을 해드리자구 했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아이들은 일제히 ≪좋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좋다면 됐다. 나도 금순이처럼 두툼한 옷을 해드리자고 생각했다. 천을 구해다가 부녀회원들에게 부탁하든가 재봉대에 부탁해서 멋들어지게 옷을 만들자꾸나.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천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버섯을 뜯어다가 말려서 팔면 돼요. 버섯 값이 비싸다구 했어요. 돈만 있으면 천이야 못 구하겠나요.≫

금순이가 또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 참새처럼 조잘거렸다.

≪옳아요! 옳아요! 버섯을 뜯어다가 지주들에게 팔자요!≫

다른 아이들도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다.

다음날부터 아동단원들은 박길송과 함께 광주리를 들고 산으로 돌아다녔다.

나는 그들이 버섯을 따들고 대열합창을 하며 이수구골 안을 지나가는 것을 여러번 보면서도 그 버섯광주리 속에 무슨 비밀이 담겨 있는지 간파하지 못하였다. 그저 저 애들이 병원에 있는 전상자들에게 입맛이 당기는 부식물을 마련해주려고 끔찍이도 애를 쓰는구나 하고 생각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그 버섯이 돈으로 되고 옷으로 되어서 어느새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추운 겨울에도 홑옷을 입고 계시는 대장 선생님께서 입으시라고 저희들은 옷 한벌을 지어가지고 왔습니다. 사양마시고 꼭 받아주십시오.≫

금순이가 아동단경례를 맵시있게 붙이고 나서 나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 때 내가 정말 홑옷을 입고 겨울을 지내곤 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 옷을 받고나니 어째서인지 속으로 눈물이 났다. 나는 그 옷을 받아들고 이런 말로 아이들을 달랬다.

≪얘들아. 나는 비록 홑옷을 입고 지내지만 혈기왕성한 사람이다. 너희들의 성의는 평생 잊지 않겠다. 그러나 이 옷은 소왕청에서 연세가 제일 높은 할아버지에게 드리려고 하니 섭섭해들 말아라.≫

아이들은 울상이 되어 원망스럽게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내가 옷을 받지 않는다고 못내 서운해하였다. 내가 두세번 타일러서야 애들은 마지못해 웃음을 지었다.

군중집회가 끝난 다음 금순이는 내 곁에 다가와 군복소매를 살그머니 만져보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걱정하였다.

≪천이 얇아서 바람이 쌩쌩 날아들겠네.≫

(내일 계속)

어랑촌유격구의 아동단학교

새 세기가 밝아 온 곳은

어둡던 밤이 가고
눈 부신 아침이 밝아 온듯
눈보라 모진 추위 다 물러 가고
꽃 피는 화창한 봄날이 온듯
그렇게
나의 운명
우리 민족의 운명
온 세상 인류의 운명에

밝은 빛과
따뜻한 열을 주는
광휘로운 새 세기여
너는 어디서 밝아 왔느냐
너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였느냐

변함 없는 자연의 법칙을 타고
동해에 얼굴 고 해님이 솟아 올라
이 아침도 밝아 왔는가

아니여라
낮과 밤
로동과 휴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루의 계선이야
원하건말건 절로 왔다 절로 가는것
하기에 내 벌써
얼마나 많은 그 계선들을
넘고 또 넘었던가
웃으며 즐기며
포근한 요람에서 단꿈속에서

허나 천날 만날도 그이에겐
단 하루낮도 안되시는듯
하늘의 태양엔 밤이 없듯이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때식도 주무심도
순간의 휴식마저 다 잊으시는 그이

력사의 방향타를 억세게 잡으시고
풍파 사나운 항로를 헤쳐
조선혁명 - 불패의 전함을
지구의 중심
시대의 한복판으로 줄기차게 몰아

기울어 지는 20세기를 바로 잡아
이 행성을 지켜 내신
그이는 강철의 령장 !

격랑치는 세월을 멈춰 세우고
마치도 깨끗이 청결을 하시듯
그렇게 전 세기가 무겁게 안고 있던
칼날이 번뜩이는
오해와 불신 반목과 대결
온갖 불행의 화근을 한 순간에 가셔 낸
그이는 희세의 천출위인 !

마치도 무질서한 대렬을 정돈하시듯
그렇게 소용돌이 치던 세계의 흐름을
자주 친선 평화의 대하로
한순간에 바꾸어 놓으신
오 그이는 위대한
새 세기의 최고사령관 !

내 끝 없는 고마움에
축축히 젖어 드는 눈길을 드니
아 환하게 웃으시며
만민의 환호에 축복을 보내시는
한없이 자애롭고 인자하신 영상
하늘 가득 어려 오는
찬란한 태양의 모습이여 !

저 빛발이여라
아름다운 희망으로 빛내 주는
눈이 부시도록 밝은 이 빛은
저 뜨거운 열도이여라
화창한 봄날 같은 이 따사로움은

하거늘 21세기여
너는 정녕
주체의 찬란한 태양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품에서 밝아 왔어라
시작도 끝도
그 이 품에 안겨 길이 빛나고 있어라 !

과학발전은 사회주의의 전도를 좌우하는 중대사이다

노동신문 사설 - 주체91, 5월 21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을 위한 총진군이 힘 있게 다그쳐 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전진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면 과학기술발전에 전당적, 전 국가적힘을 넣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기술중시방침을 잘 틀어 쥐고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21세기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과학과 기술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성과는 경제,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변혁을 가져 오고 있다. 과학과 기술발전에 대한 투자가 늘어 나고 첨단기술들이 끊임없이 개발되여 인간의 육체로동뿐아니라 정신로동까지 대신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여 사회생활의 전반에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 나고 있다. 지금과 같이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정도에 따라 나라의 위력과 전도가 좌우되는 그런 때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전 기간 나라의 과학발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왔다.

나라의 과학발전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앞날을 내다보시며 과학중시의 정책을 일관하게 견지하여 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견지명과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의 과학기술은 눈 부신 성과를 이룩하며 사회주의건설위업을 힘 있게 추동해 올수 있었다.

과학중시, 과학선행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고 결심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멀지 않은 앞날에 기어이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으로 전변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 주고 계신다. 과학기술발전문제를 민족의 앞날과 사회주의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로 여기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과학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나라의 정보산업발전을 위한 획기적조치들이 취해 지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의 성과적발사와 같은 경이적인 사변이 일어 나게 되였다.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건설되고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진하는 과학기술강국이다. 오늘 우리의 사상진지는 확고하며 총대도 든든하다. 과학을 중시하고 과학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돌려 나라의 경제를 현대적과학기술의 토대우에 올려 세울 때 우리는 멀지 않은 앞날에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할수 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국력의 기초로, 사회주의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로 간주하고 과학기술발전을 선행시켜 나가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을 선행시켜 나가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고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데 있다.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우리 식 사회주의와 같이 우월한 사회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다. 우리가 이 훌륭한 사회제도의 우월성과 생명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자면 과학기술발전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경제를 발전시켜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에게 남 부럽지 않은 생활을 보장해 주자고 하여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고 우리 교육제도와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자고 하여도 과학기술을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 특히 지구의 생태환경이 예측할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조건에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경제발전에 미치는 자연의 영향에 제때에 대처할수 있으며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 줄수 있다.

과학과 기술을 보다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선군의 기치밑에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 과학중시, 과학선행의 원칙에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선진수준에 끌어 올릴 때 우리의 총대가 더욱 위력해 지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의 심장속에 뿌리 내린 가장 우월하고 생명력 있는 사회주의로 승승장구해 나갈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 있는 오늘의 정세는 과학기술발전에 더 큰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온갖 수단을 다 리용하여 인류공동의 재부인 과학기술을 독점하려고 책동하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경제과학기술봉쇄를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운명, 민족의 장래와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세기를 주름 잡아 달리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나가야 우리는 제국주의의 경제과학기술봉쇄를 짓부시고 이 땅우에 위력한 강성대국을 일떠세울수 있다.

우리 인민은 반제계급적립장이 투철하고 민족적자존심이 강한 혁명적인민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고립봉쇄책동이 악랄해 질수록 우리 조국을 당당히 세계과학기술강국대렬에 올려 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굳세여 지고 있다. 우리 과학발전의 토대는 든든하며 그 전망도 확고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최근년간 우리 나라에는 콤퓨터수재양성기지와 첨단과학연구기지들이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건설되고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진하는 과학기술강국이다.

꾸려 지고 과학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상히 강화되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을 뚫고 오는 행정에서 단련된 과학자, 기술자들의 대오도 그쯘하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무궁무진한 과학기술적잠재력과 지식인들의 대부대가 있는 한 우리 과학발전의 전도는 양양하다.

우리는 세계를 내려다 보며 첨단과학기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려는 만만한 배짱과 담력을 지니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과학중시사상을 신념화하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에는 과학기술을 틀어 쥐고 가까운 앞날에 우리 조국을 발전되고 문명한 세계적인 강국으로 비약시키시려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의 정신이 맥박치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 있고 강력한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시키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의 의지를 심장으로 체득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령도의 나날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그를 빛내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정세가 복잡하고 조건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과학기술에 더 튼튼히 의거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풀어 나가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지녀야 한다.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받들고 나라의 과학발전에 의의 있는 기여를 하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선군시대의 지식인답게 높은 창조적열정과 배짱을 지니고 분발하여 떨쳐 나서야 한다.

오늘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김정일**강성대국건설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높은 영예와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야 한다. 이 땅에 발 붙이고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우리는 열걸음, 백걸음을 내달려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어야 한다. 정보산업과 생물공학을 비롯한 첨단과학분야를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광업과 지질, 금속과 기계, 전자자동화분야와 교통운수, 국토 및 농업분야와 의학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과학연구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목표를 내세워도 새 세기의 앞날을 내다보며 대담하게 높이 세우고 연구사업을 해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실질적인 변혁을 가져 올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계적인 과학발전추세에 민감하고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종자론을 틀어 쥐고 현실에서 긴절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올해에 경제건설분야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활짝 꽃피워 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민경제전반을 현대적기술로 개건하고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 가 생산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종자로 잡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특히 황사현상을 비롯한 생태환경의 변화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그 예측과 예보를 신속정확히 진행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안정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경제와 과학기술을 하나로 결합시키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생산도 하고 건설도 하는 체계와 질서를 세워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 들이고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생산과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갱신해 나가는것을 경제관리의 중요한 원칙으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과 건설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과학과 기술을 아무리 발전시켜도 생산과 건설을 되는대로 하면 과학기술성과의 은이 나타날수 없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생산과 건설의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공법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잘 제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에 전당적, 전 국가적, 전 사회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과학중시, 과학선행을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틀어 쥐고 온 나라에 과학을 중시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과학발전이자 강성대국건설이며 사회주의수호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발전에 대한 투자를 대담하게 늘이고 교육사업에서 질적개선을 가져 와야 한다. 각급 교육기관들에서는 수학, 물리, 화학을 비롯한 기초과학교육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콤퓨터수재양성기지를 비롯한 교육기관들을 더 잘 꾸리고 새 세기 주체과학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 내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적극 내세워 주며 연구성과들이 현실에서 실지 은을 낼수 있도록 적극 밀어 주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칠수 있도록 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 주어야 한다. 누구나 과학기술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하고 적극 도와 주는것이 사회적풍조로 되게 하여야 한다.

과학발전은 사회주의의 전도를 좌우하는 중대사이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과학중시사상을 틀어 쥐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끌어 올림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력사 강좌 제24회
학사 김창호 선생 - 주체91, 5월 23일

김정일동지께서 청소년 시기에 진행하신 창작활동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청소년 시기에 진행하신 창작활동에 대해서 사료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소년 시기 수많은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셨습니다. 그이께서 창작하신 문학예술작품들은 오늘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김정일동지는 언론계의 대가이며 문학예술의 천재입니다.≫

이와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은 언론계의 대가이시며 문학예술의 천재이십니다. 오늘 세계의 진보적 인류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20세기 문예부흥의 창시자라고 칭송하면서 그이는 문학예술분야에서 단연 첫 자리를 차지하는 천재이시라고 격찬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계 진보적 인류로부터 받고 계시는 다함없는 칭송은 문학예술의 천재로서의 위대성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문학예술의 천재로서의 푸른 싹은 그이께서 백두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던 그때부터 발현되였습니다. 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정숙** 어머님으로부터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배우시면서 문학예술적 재능의 푸른 싹을 키워가셨습니다. 그의 문학적 재능은 광복 후 새조국건설로 들끓는 거창한 나날과 준엄한 전화의 불길 속에서 그리고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투쟁 속에서 더욱 꽃펴났습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시기 창작한 수많은 작품들 속에서 몇가지 작품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준엄했던 전화의 나날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가요 ≪조국의 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41, 1952년 8월에 창작하신 가요입니다. 그럼 가요 ≪조국의 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모란봉에 붉게 타는 노을인가요
대동강에 곱게 비낀 무지갠가요
노을처럼 아름다운 조국의 품은
내가 자란 정든 집 고향입니다

2. 진달래 꽃 방긋 웃는 새봄인가요
종달새가 지저귀는 하늘인가요
봄날처럼 따사로운 조국의 품은
나를 안아 키워준 어머니입니다.

3. 바다 위에 둥실 솟는 아침핸가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인가요
햇빛처럼 밝고 밝은 조국의 품은
아버지 장군님 품이랍니다.

가요 ≪조국의 품≫은 이렇게 3개의 절로 되어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가사는 사상성으로 보나 예술성으로 보나 참으로 완벽하고 뛰어납니다. 지금까지 조국에 대해서 쓴 시나 노래, 연극들은 많습니다. 거기에는 조국이 고향이나 향토, 겨레 같은 개념과만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을 단순히 고향이나 향토에 비기신 것이 아니라 햇빛처럼 밝고 밝은 사랑으로 안아 키워주는 조국의 품은 바로 아버지 장군님의 품,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 것을 격조높이 노래 하신 것입니다. 그이께서 창작하신 이 가요는 역사상 처음으로 수령님은 곧 조국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새롭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요 ≪축복의 노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42, 1953년 6월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화의 나날 어버이 수령님께서 준엄한 전선길을 걸으실 때면 하늘가에 서린 포연을 바라보시며 수령님의 안녕을 축복하곤 하셨습니다. 특히, 전쟁승리의 날이 가까워올수록 어버이 수령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 지셨습니다. 그이께서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 가요를 지으셨습니다. 그럼 가요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1. 어둡던 강산에 봄을 주시고
조선을 빛내신 아버지 장군님
저 멀리 하늘가 포연이 서리면
인민은 안녕을 축복합니다.

2. 나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아버지 장군님 인민의 수령님
준엄한 전선길 안녕하십은
온 나라 가정의 행복입니다.

3. 미제를 쳐부신 영광의 땅에
낙원을 펼치신 아버지 장군님
찬란한 조선의 미래를 위해
인민은 안녕을 축복합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지으신 ≪축복의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시는 그의 뜨거운 마음이 가요에 한줄한줄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은 언론계의 대가이시며 문학예술의 천재이십니다. 오늘 세계의 진보적 인류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20세기 문예부흥의 창시자라고 칭송하면서 그이는 문학예술분야에서 단연 첫 자리를 차지하는 천재이시라고 격찬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계 진보적 인류로부터 받고 계시는 다함없는 칭송은 문학예술의 천재로서의 위대성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43, 1954년 4월에 창작하신 동시 ≪우리교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동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교실 언제나 재미나는 교실
앞에는 원수님 초상화 환하게 모셔져 있지요
오늘 아침도 기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서니
언제든지 반가운 듯이 우리보고 공부 잘하라고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봄바람에 실버들 푸르렀네
우렁찬 건설의 노래와 함께 원수님을 우리는 받드네

경애하자 원수님을
우리는 승리하였네 행복한 민주의 터전 건설되네
노래하자 우리의 원수님을
우리의 교실은 알뜰한 교실 언제든지 책상에 앉으면
너그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네 새나라 착한 아이들 되라고
우리는 언제나 받드네 원수님을
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나라 일군이 되자 항상 준비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창작하신 이 동시는 특별히 우수한 것으로 해서 소년단원들의 작품현상 모집에서 1등으로 당선되여 잡지 ≪아동문학≫ 주체43, 1954년 6월호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작품집에도 수록되었습니다. 동시 ≪우리교실≫을 읽고 외국의 벗들도 경탄했습니다. 수리아의 작가이며 기자인 무헨마드 알마스리는 동시를 읽고 난 감상에 대해서 자기의 저서에 ≪참으로 10대의 나어린 소년이 창작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동시이다. 동시의 사상이 매우 높은 것을 더 말한 것이 없거니와 시구가 부드럽게 째였으며 형상수법 또한 다양하다.≫라고 썼습니다.

다음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43, 1954년 11월에 창작하신 동시 ≪시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동시는 그이께서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려고 온갖 심혈을 다해가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건강을 바라시며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지으신 시입니다. 동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하루는 24시간
시간의 흐름에는 변함이 없건만
어버님 주무시는 방 책상위에 놓인 시계
무엇에 쫓기는가 바늘은 급히도 달아나네
밤은 깊었으나 아직도 돌아오시지 않는 아버님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가니
아버님 쉬실 시간 한초 한초 줄어만 드는구나
안타까운 이 마음 그 누가 알아주랴
시계야 너라도 좀 더디게 가다오
아버님 쉬실때만이라도 한초가 한시간 되어줄 수 없을까

시의 구석구석에는 어버이 수령님의 안녕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있습니다.

다음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창작하시고 몸소 역 형상까지 하신 연극 ≪보천보의 횃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연극은 주체26, 1937년 6월 4일에 있는 보천보 전투장면을 그대로 재연한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몸소 연극대본창작 사업을 맡으시고 높은 정력으로 연극대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모든 학생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역 형상을 맡으셨고 매일 학생들의 연기형상을 세심히 지도하셔서 훌륭하게 창작 공연하도록 하셨습니다. 연극 ≪보천보의 횃불≫은 보천보 전투의 17돐이 되는 날인 주체43, 1954년 6월 4일에 공연되었습니다. 교직원, 학생들과 수많은 학부형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연극의 매 장면이 다 그러했지만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투 후 환호하는 군중에게 답례하시면서 ≪동포들이여 저 불길을 보느냐.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은 살았다. 조선의 심장도 살았다. 불을 지르라. 원쑤의 머리 위에 불을 지르라.≫라고 호소하시는 장면이 펼쳐졌을때 관람자들 속에서는 폭풍같은 박수갈채와 열광적인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1930년대 보천보의 밤하늘에 울려퍼져 조국땅을 뒤흔든 위대한 수령님을 힘찬 호소가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해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동시 ≪초상화≫와 연극 ≪비행기 사냥군조≫, ≪패전장군의 말로≫를 비롯해서 많은 작품을 창작하셨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몇 개 작품들에서도 알 수 있지만 작품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성의 마음이 뜨겁게 맥박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음악적 재능과 창조적 천품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학교 시절부터 고등중학교 시기까지의 위대한 혁명역사에 대한 학습을 마감하면서 질의응답 강의를 하자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회창의 사심

무릇 사람에겐 사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심도 어느 정도야지 도수를 넘을 때는 미움을 받기 마련이다. 바야흐로 새 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민족자주통일을 맡게 될 우리 국민들은 마땅히 사심을 버리고 민족자주에 이로운 생각, 통일조국에 도움이 되는 정서로 충만돼야 할 것이다.

사심이란 문자 그대로 사욕을 채우려는 마음으로써 나의 소신으로는 그 구체적 표현으로 욕심, 야심, 심술, 심보가 있다고 본다. ***욕심쟁이, 철면피한 야심가, 더러운 심술보따리, 고약한 심보딱지라고 경향 각지에서 비난받는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이회창이다.

1. 푼수없는 욕심쟁이 이회창

욕심은 푼수에 넘치기에 무엇을 탐내거나 노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얼마전에도 그러났지만 제푼수에 어울리지도 않는 호화빌딩문제 하나만 봐도 이회창의 욕심을 잘 알 수 있다. 주거지를 여러 차례나 옮기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면서까지 한해에 2억원이상 드는 호화빌딩을 쓰고 사는 이회창은 확실히 치부를 위해서는 법도, 나라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욕심쟁이이다. 원래 이회창은 부정비리에 이골이 난 돈벌레이다. 법관의 감투를 쓰고 있을 때 그는 잡법들의 죄과를 감면해주는 댓가로 목돈을 빨아내고 96년 4.11총선시 국민혈세로 이루어진 안기부자금을 빼내서 900억원 중 500억원은 총선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제주머니에 챙겼다. 그가 97년 대선때에는 불법적으로 모은 대선자금 230여억원중에서 절반에 달하는 110여억원을 집어삼켰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지금에 와서는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사조직들을 발동해 돈을 빨아내는가 하면 자기가 대권을 쥐면 돌봐주겠다고 유혹하면서 재벌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빨아내 돈주머니를 차고 있다. 하기에 항간에서는 이회창을 가리켜 이회충, 다시 말해 사람의 몸에 붙어 피를 빨아 먹는 이나 배안에서 영양물질을 빨아먹는 회충에 비유해 이회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형비리요 뭐요하면서 말은 잘하는데 아마 이회창이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쓴다면 나라도 국민이고 제쳐놓고 제 배불리기에 콧물이 떨어지는지 눈물이 떨어지는지 모를 것이다. 지금 이 땅의 절대다수 근로민중은 돈이 없어 굶어죽고 병들어 죽고 한데에 나앉아 자살의 길을 택하고 있다. 바로 그 한푼의 돈을 위해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 민족사에 유례없는 끔찍한 살해사건들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속출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참혹한 현실이다. 그런데 이회창은 부정착복한 돈(납가리)를 서울의 (부각)산보다 더 몇갑절 높이 쌓아놓고 미국상전에게 돈을 섬겨바치는가 하면 부귀영달을 누리며 권력욕에만 미쳐돌아치고 있다. 돈이자 권력이고 권력이자 돈이라는 걸 철저한 신조로 삼고 이 땅의 절대다수 국민대중들이야 죽든 말든 자기의 더러운 집권욕을 위해 광분하는 대통령병환자가 바로 이회창이다. 꿈을 꿔도 대통령 될 생각뿐인 모양인데 제 푼수를 보고 욕심을 부려도 부려야 한다. 이회창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어느 구석에 있나하고 암만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으면서까지 전쟁미치광이 부시를 잘 섬기는게 그의 장점인지 아니면 (오새)없는 아낙네들처럼 (해뜩)거리기를 잘해서 자기 측근들도 대상하기 싫다고 하는 그 성미가 장점인지,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 적수들을 야비하게 비난하는 구시대적 정치행태를 누구보다도 아주 멋들어지게 잘하는 게 장점인지 아무리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야 대통령이 될만한 구석이 한군데도 없는데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날치니 참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누가 좋다고도 안하는데 저혼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 참으로 집권욕이 하늘끝에 닿았다. 푼수에 맞지 않게 높은데 기어오르겠다고 하다가는 떨어져 죽는다.

2. 철면피한 야심가 이회창

야심은 무엇을 이루어보겠다고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욕망이다. 다시 말해 야심은 양으로는 목적을 이룰 힘이 모자르니까 음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회창은 자기의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보겠다고 하는 철면피한 자이다. 주지하다시피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 내놓은 것처럼 지난 97년 대선때에도 이회창은 당시 ≪신한국당≫내에서 대표직을 내놓으라고 소리가 많았지만 끝끝내 버티다가 ***극우반동보수세력인 ***지지를 받아 간신히 대선후보가 되었었다.

97년 대선당시 자기 당내에서조차도 ***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대선에서 패배하고 다음대를 노리고 미국을 ***입김을 부어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다. 그래서 2000년 미국의 대통령선거전에서 매파로 구성된 부시의 공화당이 이기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른다.

날치기로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자기가 대통령이 된 만큼이나 좋아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우리 민족의 통일기운이 높아지자 극우반동보수깡패집단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회창이 자기의 지지기반이 무너지는데 겁을 먹고 쩔쩔 매면서 안절부절못하다가 **깡패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하니까 살구멍을 ***

≪한국≫의 대통령이 되보겠다고 하는 자가 대양건너 저멀리 미국땅에서의 대통령선거에 그처럼 관심을 보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대통령이 될 수 없***외세의 힘을 빌어**대통령이 되보겠다는 것이 바로 이회창의 철면피한 야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시의 졸개가 되어 친미사대매국배족적 행위를 일삼아온 자가 바로 이회창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회창은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쌍수 들어 환영하고 나온****미국상전들에까지 찾아가 북에 대한 ***전쟁폭언을 떠벌이다 못해 부시의 아가리에서 ≪악의 축≫망발까지 튀어나오게 키질을 하는 반민족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부시깡패의 옷섶에 매어달려 주한미군 영구주둔을 애걸하는가 하면 미국의 북에 대한 핵***적극 추종하면서 한반도에 민족공멸의 위기를 앞장서 몰아오고 있다. *** 제 애비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아 미쳐도 더럽게 미쳐버린 극악한 민족반역자의 철면피한 야심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다.

3. 더러운 심술보따리 이회창

심술은 남을 골리기 좋아하거나 남이 잘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마음이다. 이회창의 심술은 놀부의 심술을 능가한다.

최근에 ≪좌파적 정권연장≫이요 뭐요하면서 구시대적 정치행태인 색깔시비를 하고 돌아치고 다녀 심술보따리 이회창의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다.

색깔시비가 어느때 말인데 아직도 들고 돌아다니는지 막 구역질이 난다. 원래 색깔시비는 미국이 이 땅을 강점하고 친미분자였던 이승만을 내세워 망국적인 5.10단선을 강행하기 위해 이 땅에 불법 ***시킨 말이다.

당시 단독정부구성을 반대하며 통일정부를 위해 애쓰시던 김구, 김규식, 여운형선생들도 미국놈들이 조작한 색깔시비에 걸려 갖은 모해중상을 당하다가 결국은 미국의 하수인들에게 목숨을 빼앗겼다. 이 땅에 민주**열사들이 모두들 그 색깔시비에 걸려 감옥살이를 해야했고 청춘과 생명을 잃지 않으면 안되었다. 80년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당시 이회창이 대법원판사 ***에서 광주학살의 주범 미국을 비호두둔하면서도 애국청년학생들에 대해선 북을 이롭게 했다는 억지심술을 부려 색깔시비를 해가면서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에 걸여 그들을 극형에 처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요즘 억지심술이 내밴 이회창의 퍼주기론 역시 뒤집어 놓은 색깔론이다. 진짜 퍼준 것은 이북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이 세론의 일치한 주장이다. 이회창이 그 주둔을 애걸하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30조원을 밑돈다고 한다. 이것은 만권지폐를 ***9000여대로 날라야 할 양이다. 최근 온 국민이 반대한 ≪F-15K≫전투기도입에도 수조원의 막대한 국민혈세가 퍼주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정말로 퍼주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모르쇠하면서 대북퍼주기론을 집요하게 들고 나오는 것은 그의 억지심술보따리에서만 나올 수 있는 색깔시비라 아니할 수 없다. ****색깔시비가 21세기에도 계속 울려나오고 있으니 이회창의 심술은 정말 구역질나는 더러운 ***이회창의 더러운 심보는 그 근본원인이 다른데 있지 않다. 미국***친미색채가 매우 강한 극우반**보수세력의 지지하에서만 자기의 치부욕, 권세욕, 대권야심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인간추물인 것으로 하여 그토록 더러운 심술보따리가 터지는 것이다.

진짜로 해야할 색깔시비는 친미색채냐 반미색채냐 하는 문제이다. 이 땅의 민주화를 ***암초가 바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친미사대분자들때문이라는 것은 미국역사가 증명해주는 것이다. 반미를 외치면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고 친미를 부르짖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이회창의 거꾸로 된 심술논리는 이미 지나간 ***미국놈들의 ***민주가 무엇이냐 ***주고 있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친미색채가 매우 강한 구시대 심술보따리 이회창을 매장하고 그의 말로를 통해 극우반공보수세력들에게 강타를 안겨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4. 고약한 심보딱지 이회창

심술보따리가 남이 잘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거라면 심보딱지는 남이 안되는 것을 신나하는 ****이회창***남을 안되게 하는 ***고약한 심보를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해서이다.

***고약한 심보를 가진 자가 하나 있었는데 **포악하기 그지없는 ***거기에는 기막힌 사연이 있었다. **가 어릴 때 자기 친구와 함께 부처님에게 소원을 풀어달라고 절간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 부처님을 소원을 먼저 말한 사람보다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두배되는 소원을 풀어준다고 했다. 그러니 ***서로가 눈치만

→

한나라당패거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철 : 안녕하세요.
윤정원 : 네, 안녕하세요.
이 철 : 온 겨레와 세계를 **시켰던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돌이 다됐는데요. 돌이켜보면 감격이 새로워집니다. 통일의 환희가 파도쳐 설레이고 통일의 ***6.15공동선언발표로 반세기 넘도록 ***민족의 혈맥이 통하고 이 땅에 화해와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됐죠. 해내외의 온 겨레와 전세계는 한반도에서의 극적인 사태발전을 놓고 경이적인 사변으로 ****않았고 6.15공동선언에 ***으로 우리 민족의 앞길에 새로운 전망이 ***지 않았습니까. 6.15공동선언발표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남북사이에는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각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망라됐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추진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6.15공동선언이행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제동을 걸고 ***우익보수세력들의 **있는데요. 그 대표적 세력이 바로 이회창과 그에 합류한 세력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남북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실현에 역행하는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의 반북적인 행태에 관해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한나라당패당들은 이번에 진행된 제40차 이산가족상봉을 훼방놓기 위해서도 온갖 악담질을 하며 망동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제4차 이산가족상봉****금강산입산료를 받는다고 ***이번에 공동선언***지난 4월초에 발표된 남북공동선언****한나라당패거리들이 얼마나 허위날조와 모략의 능숙자이고 남북관계개선에 쐐기를 박기 위해 날치고 있는가 ***백일하에 드러냈다 하겠습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원래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해 남북간의 대화와 접촉, ***결사반대하고 ***나온겁니다. 남북이산가족상봉 **북의 돈벌이를 몰아붙인 것은 북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나아가서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을 막아보려는 반역적인 범죄행위입니다. ****
이 철 :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남북관계진전을 파탄시켜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했는데요. 이회창과 한나라당패당이야말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정원 : 이회창을 ***한나라당패당은 4.8남북합의서가 발표***평양상봉이 일정에 오르자 그것을 반대해 미친듯이 날쳤어요. 그들은 평양상봉이 시기상조라느니 북의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느니 ***매달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장장 55년만에 **평양상봉이 시기상조라면 과연 어느때가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가 하는 건데요. 민족분단의 고통***조금이나마 생각을 한다면 어서 국토분단을 끝장내고 통일할 의사가 조금이나마 있다해도 감히 이따위 소리를 못할 겁니다.
통일전선문제도 그래요. 통일전선이라는 건 ***화해하고 단합하면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건데 사상과 정견, 주의, 주장을 초월해 민족을 위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단결하고 힘을 합쳐 통일하자는 것이 민족****한나라당패거리들은 그 누구***조차 모르는 무식한 식견에서 그따위 반통일망발을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 철 : 한나라당패거리들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북에 굴복했다느니 북에 이용당했다느니 하는 독설을 내뿜으며 그를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국토와 민족의 분단****단말마적 발악이고 가련한 **이죠.
윤정원 : 그렇습니다. 6.15공동선언으로 말하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함께 손잡고 나갈 ***통일의 이정표입니다. 여기에는 남과 북이 ****어느 일방에 치우친 것이라는 공동선언 어느 조항에도 없습니다. 6.15공동선언을 놓고 굴복이니 이용이니 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고 통일을 원치않는 민족반역의 무리들이나 할 소리죠.
이 철 : 남북공동선언을 반대하고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공동선언의 기본정신***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죠.
윤정원 : 남북공동선언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것은 외세의 간섭으로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된 나라의 통일을 끝장내고 통일을 이룩해야 할 그런 절박한 요구를 ***그런데 이회창을 위시한 한나라당패거리들은 공동선언이 미군철수에로 이어질 수 있다느니 ***과의 **관계를 **할 수 있다느니 **백지화해야한다고 떠들었고 미군의 영구주둔과 미국과의 관계를 제창해나섰습니다.
자주와 통일의 기본걸림돌인 미군의 영구주둔과 한***나라와 민족의 ***친미사대매국집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썩어빠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들고 나왔어요. 이것은 공동선언***하고 있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따라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것을 부정해나선 겁니다. 이 민족반역의 무리들은 남북간에 통일****거역해나서고 있는데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북에 대한 **매도하고 이른바 상호주의를 제창해나서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개선**나라의 통일문제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
이 철 :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최근에 그들이 들고 나온 이른바 ≪대북기본노선≫이라는데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 작성한 ≪대북기본노선≫의 기본내용은 이른바 ≪분리원칙≫, ≪선평화후교류협력≫, ≪북부개발계획≫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우리 민족의 화해와 나라의 통일은 안중에도 없고 외세의 힘을 빌어 북을 어째보겠다는 그러한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거예요. 민족의 통일염원에 역행해 북진통일을 꿈꾸는 이회창패당이야말로 우리 민중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역적의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철 :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의 역적**얘기할 때 고질적인 친미사대매국기질에 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상전을 할애비처럼 섬기고 미국상전에 빌붙어 연명하던 것이 그들의 본질적 근성이잖아요.
윤정원 : 특히 이회창의 친미사대매국행위는 을사오적을 찜쪄먹을 정도입니다. ***이회창의 생리를 알 수가 있죠. 이회창의 친미사대매국행위는 지난 1월 미국행각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이회창은 미국**국무장관, 대통령보좌관 등 상전들의 옷자락에 매달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찬성한다느니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나라당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느니 하고 아양을 떨었고 이회창에게 동족의식이 조금이라도 있고 민족의 피가 단한방울이나마 있다해도 그런 망동은 감히 부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 철 : 역대적으로 보면 민족을 등지고 역적질을 하던 사람들 모두가 제명에 살지 못한 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이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찾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윤정원 : 그렇습니다. 역적질중에서도 대역적죄는 나라와 민족을 외세에 내맡기는 죄죠.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지금 을사오적을 능가하는 역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민중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같은 민족반역의 무리들은 결코 무사치 못할 거예요. 요즘 이회창패당은 미국상전의 뒷받침으로 대권찬탈을 꿈꾸며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역적질에 역적질을 덧쌓고 있는데요. 이건 저들의 임종을 앞당길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15공동선언발표 2돌이 되는 역사적인 이 시각 우리 민중은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의 반민족반통일행위를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거고 철퇴를 안기고야 말겁니다.
이 철 :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백해무익하다는 말이 있죠. 이회창 한나라당패당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해만 끼치는 백해무익한 암과 같은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쓰레기집단인 한나라당패당들을 오물처리장에 깊숙이 묻어버려 다시는 악취를 풍기지 못하게 해야 하겠죠.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2일

살피면서 말을 안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 먼저 부처님께 내 눈알을 하나 뽑아주십시요고 말했다고 한다. 자기 눈알이 뽑히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친구가 두 눈알이 다 뽑히길 바래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얼마나 심보가 고약하면 남을 안되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안되도 좋다 이렇게 **것인가. **의 얘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심보가 고약한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이회창이다.

2000년 4월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진다는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자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거니 뭐니하면서 **질을 하더니 정상회담이 뜨거운 **펼쳐질 때에는 온 겨레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에 좋아하는데 유독 이회창만은 제 집에서 TV를 등지고 돌아앉아 손자와 화투를 쳤다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 고약한 심보를 파헤쳐***

더욱이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고약스런 심보는 미친년처럼 발작하기 시작했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공동선언의 첫째조항에 대해서는 북의 자주통일노선을 그대로 받아먹었다거니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둘째조항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고수해야한다거니 뭐니하면서 조항별로 번번히 시비하기에 급급했다.

자주통일을 하지 않으면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의 이익에 맞게 통일***연방제로 통일하지 않으면 ***이회창의 고약한 심보***극악한 반통일역적 이회창이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지난해 9.11사건이후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것으로 하여 남북간의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이 중단되었고 모든 국민들이 미국을 추종하는 당국을 비난하며 ***이회창만은 너무 좋아서 입을 헤벌리고 ***오늘까지도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6.15공동선언에 대한 태도는 통일과 반통일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하기에 이 땅의 청춘들은 6.15시대의 ***불퇴전의 의지를 안고 몸과 마음을 다바쳐 통일의 길에 앞장서 나서는 것이고 이 땅의 각계 국민들도 6.15공동선언이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역행해 민족자주통일의 길을 한사코 가로막아 나서며 민족의 이익을 헤치는 고약한 심보딱지 이회창역도를 용서할 수가 있겠는가.

이와 같은 푼수없는 욕심쟁이, 철면피한 야심가, 더러운 심술보따리, 고약한 심보딱지 이회창이 한나라당에 몸뚱이를 담고 대통령이 되보겠다고 하니 한나라당이 인물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기야 **오물들**역사의 시궁창**굴러떨어지라지.

이 글을 마치며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조국에서 살게 될 ***호소하고 싶은 **첫째가는 원수인 ***사타구니에 붙어 **한사코 가로막아 보려고 미쳐날뛰는 이회창역도를 매장하는데 앞장서 나가자는 것이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2일

통일연대, 북 테러지원국 지정 규탄 KAL기 사건 진상규명 촉구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미국규탄 및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문

미국은 21일 ≪세계테러리즘의 유형: 2001년≫을 발표하고 북한등 7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였다. 이로써 88년 1월, 미국이 의혹의 김현희 KAL기 사건을 북에 의한 테러라고 규정하고,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포함한 후, 북이 미국의 세계패권질서를 위한 협조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함으로써, 북은 15년째 뚜렷한 증거와 근거 없이 테러지원국이 되어버렸다.

통일연대는 한반도 평화와 6 · 15 남북공동선언실현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미국을 엄중히 규탄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미국의 일방적인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치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하려는 6 · 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심각하게 방해 위협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은 ≪세계테러리즘의 유형: 2001년≫을 통해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치의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북한이 9.11 테러 직후 테러 반대 정책을 거듭 밝히고 2개의 반테러 국제 협약 가입과 함께 5개 협약 추가 가입 의사를 시사하는 등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미국의 테러 논의 제안 등 국제 사회의 테러퇴치 노력에 협조하려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둘째 북한이 한국의 대화 제의와 미국의 기본합의 개정 논의 제안을 거부했다며 기본합의 개정 논의 거부는 핵 개발과 확산 문제와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사유 그 어디를 살펴보아도 북이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은 없다. 오히려 MD 정책추진 물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로 세계평화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던 미국이, 9.11테러를 빌미로 미국중심의 세계군사패권질서 강화 및 미국의 세계침략전쟁 조치에 북이 협조하지 않았을 뿐이다. 미국은 또한 10. 12 북미공동성명과 제네바 합의 파국 위기를 조성한 당사자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은채 북의 일방적 항복을 강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모든 책임을 북에게 전가시키는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결국 미국은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함으로써 대북봉쇄정책, 대북강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한미군사동맹강화 및 북에 대한 침략근거를 마련하는데 여념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치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하려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조치이므로, 우리 민족은 미국의 뻔뻔스러운 조치에 대해 엄중한 규탄의 목소리를 전하여,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연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포함시킨 발단인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와 잇닿아 있기에 김현희 KAL기 사건부터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7년 11월 29일, 대선 18일전 발생한 김현희 KAL기 사건으로, 북은 88년 1월부터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경제봉쇄는 물론 각종 봉쇄정책으로, 경제난과 전력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야만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적인 테러지원국 지정에 북이 포함되게 된 발단인 김현희 KAL기 사건은 희생자 가족들이 당국과 안기부의 졸속수사에 항의하여 15년째 의혹을 제기하고, 재수사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김현희와 동행했다는 김승일의 죽음에 의혹이 있음을 제기하고, 김현희 KAL기 사건의 수사기록의 일부인 김승일 부검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 공작원이라고 했던 김승일의 젊은 시절 사진이 수사자료에 포함되어 있는점, 김승일의 사망장소가 당시 수사발표와 부검자료가 다른점, 독약앰플이 있었다는 담배필터가 식도와 기도에 동시에 박혀있었다는 점, 식도와 위에 독약앰플 유리조각 파편이 발견된점등은 김현희 KAL기 사건은 북의 정예공작원에 의해 이루어진 폭파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북을 음해하려는 미국과 당시 안기부의 고도의 조작 날조극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김현희 KAL기 대책위와 가족들의 수사기록 행정청구소송까지 기각시킴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심의를 원천적으로 가로막음으로서 이제 KAL기 사건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되어 가는 상황이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미국의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의 발단인 김현희 KAL기 사건의 진상규명은, 시신은 물론 유품조차도 발견하지 못한채, 죽음의 원인도 모른채 한탄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의 한을 푸는 문제인 동시에 북 테러지원국 해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할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빠르게 해결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위협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즉각 철회하라!

6 · 15남북공동선언 실현 방해하는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즉각 철회하라!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으로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2002/05/24 통일연대

≪서민 행보≫ 이회창, ≪옥탑방≫ 몰라?

≪≪옥탑방≫이라는 말이 있다. 뜻을 아나.≫

≪잘 모르겠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옥탑방≫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해 ≪위장서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회창 후보는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궁 SBS 해설위원이 ≪≫옥탑방≫의 말 뜻을 아느냐≫고 물었지만 한참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은 뒤 끝내 ≪모른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궁 해설위원은 이 후보에게 ≪옥탑방은 80년대부터 쓰인 용어로 서민과 관련된 용어≫라고 설명해 준뒤, ≪이 후보에게 너무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다≫고 뼈있는 한 마디를 던졌다.

≪옥탑방≫은 건물 옥상에 있는 도시서민들의 ≪무허가≫ 주거공간으로서 서울시에만도 수만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4월 3일 ≪옥탑방≫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한나라당도 역시 ≪옥탑방≫ 양성화를 위해 같은 제목의 법안을 5일 뒤 국회에 제출한 바 있어, 이날 이 후보가 ≪옥탑방≫을 모른다고 답한 데 대해 참석자들은 의아해 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위장서민≫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서민이 아니면서 서민으로 가장하면 서민이 되겠는가≫라며 ≪(그 동안 나의 행보는) 내가 가지고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면을 알리겠다는 뜻이었고, 중요한 것은 서민들을 위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이다≫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지난번 스승의 날 한 여고를 방문해 했던 ≪빠순이≫ 발언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했다. 이 후보는 ≪내가 실수했다≫며 ≪요즘 세대와 말을 하려면 그 세대의 생각과 맞춰야 한다고 보고 한 것인데 그날 학교로 갈 때 입력을 잘못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또 ≪주간 오마이뉴스≫ 3호의 ≪97년 대선직전 이회창 후보 장남의 병역 기록이 변조됐다≫는 보도와 관련 ≪분명히 말하지만 (병역면제를) 은폐했다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겠느냐≫며 병역면제 은폐 기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지난번 관훈토론에서 제기된 ≪6 · 15공동선언≫ 2항 폐기 논란에 대해 ≪합의내용 중에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조항을 존속시켜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당연히 제기되는 것≫이라며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타이거풀스측으로부터 한나라당이 5000만 원 후원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아직 확인을 못했다. 확인된 뒤에 말하는 게 좋겠다≫고 받아 넘겼다.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궁 해설위원을 비롯해 권재홍 MBC 경제부장, 김경한 YTN 정치부장, 박영환 CBS 사회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그러나 관훈토론 때의 질문이나 답변과 중복되는 것이 많아 이날 토론회는 다소 긴장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 후보도 계속되는 토론회에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관훈토론 때와는 달리 여유를 찾지 못하고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

최경준 이종호 기자
2002/05/24 오마이뉴스

≪학살의 책임자는 미국이다≫

전민특위, 신천학살 보고대회 가져

한국전쟁 시기 황해도 신천지역에서 저질러진 일련의 학살이 미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오전 11시 ≪미군 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는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전민특위 국제조사단 신천학살 방문 보고대회≫를 가지고 한국전쟁 시기 황해도 신천지역의 학살에 미군이 개입한 사실을 밝혔다.

전민특위는 지난 2000년 6월 건설 이후 한국전쟁 전후 미군에 의해 자행된 학살만행들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적인 저명인사들로 국제조사단을 구성하여 남북을 오가며 진상조사 작업을 벌여왔다.

이번 보고대회는 지난 4월 21일 MBC TV에서 방영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1950년 10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황해도 신천지역에서 있었던 학살이 미국과 유엔군의 평양진격 후 첨예하게 대립된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동족간의 참극이라고 결론지은데 대해 전민특위가 국제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신천학살에 미군이 개입했음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민특위는 2000년 1월을 시작으로 2001년 5월, 2002년 3월에 각각 신천학살지를 방문하여 답사와 증언청취를 통해 학살을 조사하였고 이날 보고대회는 2000년 1월에 방문한 셰론 아이링 국제행동센터 내 ≪미국은 물러가라≫ 공동대표와 2002년 3월 방문한 정유미 전민특위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이 함께 했다.

셰론 아이링 공동대표는 ≪8일간 황해도 신천지역을 방문해서 한국전쟁기간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을 조사했다≫며 ≪많은 증인들을 만나 증언을 청취했고, 직접적인 증거와 사진을 통해 미군이 행했던 참혹한 학살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유미 사무부총장은 ≪금년 3월초 2차 조사를 다녀왔고, 신천지역의 저수지와 학교를 돌아다니며 학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며 ≪주민들에게 직접 미국이 쏴죽였느냐는 말을 계속해서 물어봤고, 확실히 미군이라고 증언하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유미 사무부총장은 ≪신천박물관에는 당시의 학살을 증명할 수 있는 적나라한 자료들이 보관되어있으며, 지금도 신천지역 주민들은 굶어죽더라도 미국이 주는 쌀은 먹지 않겠다고 할만큼 당시의 학살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유미 사무부총장은 또한 ≪MBC가 동족간의 학살이라는 결론으로 황해도 신천의 양민학살을 보도하는 것을 보며 준비된 조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에 실망했다≫며 ≪진상조사단의 결론은 명백한 미군에 의한 학살이다≫고 주장했다.

전민특위는 ≪MBC 신천 학살보도에 대한 전민특위 국제자문위원들의 성명서≫를 통해 ≪한국전 당시의 모든 전투 및 이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성원들은 미국의 단일한 명령에 귀속되어 있었고, 작전지휘권이 맥아더에게 있던 상황에서 미군은 수천명의 민간인을 탄압하고 죽이는데 있어서 이승만 정권의 군, 관, 경찰 세력과 합세했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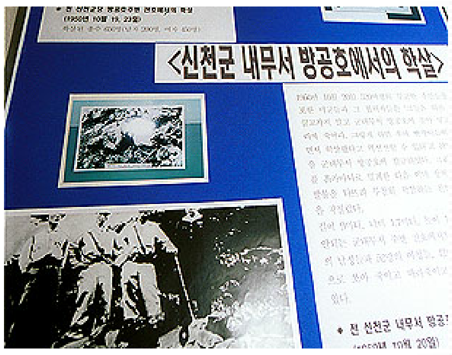
이러한 정황에서 ≪황해도 신천지역에 미군은 이승만 정권의 극우청년대와 함께 진주했고, 1950년 당시 신천의 인구수는 140,000명이었지만, 미군이 남으로 철수한 후 그해 겨울의 인구수는 고작 10,5000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전민특위 국제자문위원들은 ≪문제가 되었던 1950년 10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제로 그곳에 있었던 다수의 주민들과의 대담을 통해 ≪Harrison D. Madden≫과 ≪Catain York≫ 두 명의 미군장교를 확인≫하였고, ≪밀폐된 공간에서 가솔린으로 불을 내 민간인을 살해한 곳과 총으로 학살한 곳 등 세 곳의 학살지를 방문해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제조사단은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신천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들은 미군장교의 지휘와 감독아래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은 미국과 한국에 있는 비밀문서들을 샅샅이 조사하는 것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셰론 아이링 공동대표는 ≪얼마전 밝혀진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에서의 미군의 학살만행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미국은 전쟁기간 동안의 미국의 비밀문서를 공개하고 미군의 한국 양민학살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혀 전민특위의 활동에 따라 앞으로 노근리 이후 한국전쟁 당시의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계속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렬 기자
2002/05/24 통일뉴스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반대 기자회견 열려

조선시대 왕들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선원전 자리에 미대사관이 직원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가칭)덕수궁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 주최로 ≪옛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임산 겨레문화답사모임 대표는 현황 브리핑을 통해 ≪주한 미대사관 측이 2006년까지 옛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 건물을 신축 · 이전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현 미대사관저 내부에 54가구 규모의 직원 숙소용 아파트 8층과 군인숙소 4층 등도 함께 신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임산 대표는 ≪특히 신축될 직원 아파트는 옛 선원전이 있던 터로 발굴되지 않은 문화유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보호해야할 지역에 주택건설 촉진법의 예외규정을 두면서까지 미대사관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미대사관 직원아파트 건립 문제는 미대사관 측이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소형평형과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대상에서 해당건물을 제외시켜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요청하면서 공개됐다.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미대사관 측의 관계법령 개정요구에 건설교통부는 외교관용 아파트를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의 예외규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측은 성명서를 통해 ≪미대사관 측의 외교적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법개정요구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사대적인 행태를 규탄≫함과 동시에 ≪주둔국의 문화재를 짓밟고 대규모 복합 외교공관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상과 이를 위해 주둔국의 관련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는 ≪미국의 오만하고 부당한 주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주최측은 ≪미대사관 측이 옛 덕수궁 터로 대사관과 아파트 등을 신축 · 이전하려는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서울시와 관계당국은 덕수궁을 비롯한 정동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주최측은 향후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서명운동, 덕수궁 정동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 학술세미나 개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옛 덕수궁 터 매입≫과 ≪미대사관 신축을 위한 제3부지 선정≫ 공약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옛 덕수궁 터는 현재 미대사관 저로 편입되어 있고, 5공화국 시절에 미대사관의 신축 · 이전 부지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있어 건설교통부의 관계법령 개정이 결정되면 해당부지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와 중구청의 건축허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최측에 따르면 미대사관 측은 직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이미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 건설회사는 한신대 박물관팀에게 옛 덕수궁 터에 대한 유적조사를 의뢰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렬 기자
2002/05/24 통일뉴스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에 대하여(1)

- ≪9월테제≫에 대한 해석

글을 시작하며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글을 맺으며

글을 시작하며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적 과업은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과업,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과업,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과업이다. 나는 민족민주전선이 이 세 가지 과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여 적어도 10년을 전후한 기간에 완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전망은 당면정세와 역량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기초한 것이며 사회역사발전의 법칙성과 필연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세가지 과업이 앞으로 10년을 전후한 기간에 완수하리라는 것은 확정적이다. 민족민주전선의 최후 승리에 대한 부동의 신념과 강인한 의지는 이러한 확정적 전망에 의해서 전선일꾼들의 심장에 생명의 기운을 뿜어준다.

지난 몇해동안 이어지고 있는 나의 사색과 집필과 강연은 사회역사발전의 법칙성과 필연성을 반영하고 있는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적 과업이 현시기 어떠한 정세속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해명하는데 집중되어있으며, 그 전략적 과업이 앞으로 10년을 전후한 기간에 완수될 것이라는 전망을 좀더 투명하게 제시하는데 집중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아직 미흡한 성과를 내놓았을 뿐이다.

이 글은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중앙상임위원회가 지난 9월 22일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조국통일대사변기를 맞는 전국연합의 조직 · 정치방침≫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발표한 ≪9월테제≫를 읽고 그 문건에 훌륭하게 정리되어 있는 전략적 과업에 관하여 조금 부언하여 설명하려는 목적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내가 지난 10월9일 전국연합 기관지 민의 편집진으로부터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는 것과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 청탁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는 문제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문제는 모두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적 과업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를 이론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의 주제를 세 가지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를 해명하는데 집중시켰다.

두루 알려진 대로,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적 과업은 자주민주통일의 강령에 의하여 규정되었으며 전민족적인 반제자주역량, 전민족적인 조국통일역량, 남(한국)의 민주변혁역량에 의하여 지금 힘있게 수행되고 있다. 자주강령은 전민족적인 반제자주역량이 수행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을 제기하고 있으며, 민주강령은 남(한국)의 민주변혁역량이 수행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을 제기하고 있고, 통일강령은 전민족적인 조국통일역량이 수행하는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주시해야 할 사실은 민족의 자주성완성,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자주적 평화통일실현이라는 세 개의 전략적 과업과 반제자주역량, 민주변혁역량, 조국통일역량이라는 세 개의 역량은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배열되고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세가지 전략적 과업과 그것을 수행하는 역량이 체계적으로 배열되었다는 말은 세 가지 전략적 과업이 서로 구분되는, 그러나 분리할 수 없는 성격, 동력, 실현경로에 의해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세 가지 전략적 과업의 성격, 논리구성은 더 복잡하고 세밀한 회로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9월테제≫가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듯이,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은 자기의 전략적 과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이미 해명하였다. 이제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문제, 그리고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동력문제, 그 과업을 실현하는 경로문제를 해명해야 하는 한 층 더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아직 미흡한 이 글은 그러한 높은 단계에 들어선 민족민주전선의 이론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토론과정에 하나의 논변으로 내놓았다.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과업은 민족의 자주성을 지역적 범위가 아니라 전민족적 범위에서, 그리고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게 실현하는 최대, 최상의 전략적 과업이다. 그런 까닭에 ≪완성≫이라는 개념을 쓰게 된다. ≪완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 할 때 지적해야 하는 문제는 남(한국)의 자주성만이 아니라 민족전체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는 사실이다.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한다는 것은 남(한국)과 북(조선), 그리고 해외동포집단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여, 그 과업은 남(한국)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지배 · 수탈을 제거하고, 북(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적대 · 말살 책동을 제거함으로써 한(조선)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성원들은 물론 해외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해외동포집단을 포함하는 전체 민족의 자주성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한다는 뜻이다.

그 전략적 과업의 성격문제를 논할 때, 우리는 ≪민족해방≫이라는 기존의 개념을 쓰지 않고, ≪민족자주≫라는 새로운 개념을 쓰고 있다.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은 1930년대 이후에 조선민족이 전개하였던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과업이였으며, 지금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민주전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업이다. 우리가 민족해방이라는 개념대신에 민족자주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까닭은 두 가지다.

첫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다양한 민족민주전선이 처해 있는 조건과 달리 한(조선)민족은 제국주의세력의 분할 · 지배정책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분단된 특수한 조건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문제를 새로운 개념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영토분할과 민족분열을 알지 못했던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조건과 달리, 분단이후 남과 북의 사회변혁운동의 발전수준이 서로 달라진 현실조건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문제를 새로운 개념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줄여서 말하자면, 민족자주라는 개념과 민족해방이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까닭은 그 두 개념에는 반제자주화운동의 형식과 내용에서 발생한 일정한 차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족해방이라는 개념은 제국주의세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배와 수탈을 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전개되는 반제자주화운동의 전략개념이다. 민족해방은 이전 시기의 식민지적 예속이나 오늘날의 신식민지적 예속을 가릴 것 없이 제국주의세력에 의하여 강요된 모든 형태의 예속상태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집단의 변혁을 지시하는 개념이다. 이에 비하여 민족자주라는 개념은 제국주의세력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모든 종류의 반제자주화운동을 규정하는 폭넓은 전략개념이다. 민족자주는 민족해방을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된다. 그러므로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을 실현한 뒤에도 제국주의세력이 이 지구 위에 남아있는 한, 민족자주의 전략적 과업은 계속하여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 남는다.

이를테면 베트남 민족은 지난 시기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을 피흘려 수행하고 승리했으나,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을 완수한 뒤에 제기된 민족자주의 전략적 과업을 완수한 뒤에 제기된 민족자주의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는 시행착오와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오늘 반제자주화운동의 동력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는 베트남 민족이 저러다가 전 세계 반제전선의 전진행로에서 낙오하는 게 아니냐 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베트남 민족이 민족해방의 과업을 완수한 뒤에 자기들의 반제자주화운동을 영도할 사상, 다시 말해서 자주성에 관한 철학적 세계관에 기초한 지도사상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족자주라는 개념은 한(조선)민족이 피흘려 개척하고 자기의 힘으로 진전시키고 있는 반제자주화운동을 영도하는 사상을 한마디로 농축시킨 개념이며, 자주성에 관한 철학적 세계관에 기초한 사상의 핵심개념이다. 또한 민족자주라는 개념은 민족과 계급이라는 두 개의 공고하고 포괄적인 사회적 집단을 수행단위로 하여 진전되고 있는 현존 인류의 자주화위업을 지시하는 보편적 개념이다.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 앞에 높이 치켜든 민족자주의 위대한 기치는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의 반제민족해방운동과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의 반제자주화운동을 하나의 유기체로 결합시킨 폭넓고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민족자주라는 이 한 마디의 단어 속에는 반세기를 넘긴 지난 세월동안 파쇼감옥의 쇠창살 속에서, 교수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며 사라져간 남(한국) 민족민주전선의 투사들이 흘린 피와 눈물이 고여있으며, 내 나라 흙탕물을 마실지언정 제국주의자의 코카콜라는 마시지 않겠다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고난의 행군≫을

헤쳐온 북(조선)의 혁명적 인민들이 흘린 피와 눈물이 담겨있다. 민족자주라는 이 한 마디의 단어 속에는 제국주의 세력의 광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싸우며 매개 민족의 자주성과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있는 전세계 진보적 인민이 간직한 철의 신념과 의지가 자리잡고 있다.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이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전략적 과업이 두 단계로 수행되는 것과 달리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수행되지 않는다. 그 까닭은 그 전략적 과업이 다른 두 가지 전략적 과업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두 가지 전략적 과업의 수행과정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전략적 과업은 오직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 그 과정을 통하여, 그 과정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조금도 달라질 수 없는 불변의 철칙이다. 그러므로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은 다른 두 가지 전략적 과업과의 관계에서 선차적 중요성을 지니게 되며, 다른 두 가지 전략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근본과업으로, 다른 두 가지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선도과업으로 된다.

우리가 민주정부 수립과 평화통일 실현의 전략적 과업을 말할 때, 언제나 ≪자주적≫이라는 규정적 개념을 앞에 내세워 자주적 민주정부와 자주적 평화통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정부는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수립될 수 있으며, 평화통일도 마찬가지로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자주적≫이라는 개념은 남(한국)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민족해방이라는 특정한 전략적 과업을 뜻하는 것이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자주적≫이라는 개념은 남(한국)에서의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과 북(조선)에서의 민족자주의 전략적 과업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 전략개념이다. 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 가운데서 자주강령의 의미는 그러한 총체적 전략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자주적≫이라는 개념은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해야 하는 고유한 과업,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을 지시해주는 개념이며, 그것은 또한 제국주의세력의 직접적인 지배와 수탈을 겪었던 항일혁명시기의 식민지민족해방의 혁명전통을 계승 · 발전시킨 역사적 개념으로 된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동력은 민족주체역량에서 나온다. 민족주체역량이란 남북해외에 존재하는 전민족적 범위의 주체역량을 뜻한다. 전민족적 범위의 주체역량이 반제자주화운동을 추진하는 전선을 민족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민족주체역량은 남북해외의 각 지역에 병렬 · 분산적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 조직 · 체계적으로 배치될 때 비로소 제국주의 세력을 압도하는 반제자주화운동의 강위력한 동력으로 될 수 있다. 민족주체역량을 조직 · 체계적으로 배치한다는 말은 반제자주화운동의 다양한 동력을 지위와 역할의 일정한 차이에 따라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으로 구분하고 배치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반제자주화운동의 동력을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을 구분하고 배치하는 문제를 이해할 때 보조동력을 피동적이고 열등한 동력으로 평가절하하려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중심동력은 주체적이고 우월하지만 보조동력은 비주체적이고 열등하다고 착각하는 소아병적 오류는 피해야 한다.

반제자주화운동의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은 모두 민족주체역량을 구성하는 동력의 일부이므로, 보조동력도 중심동력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주체적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반제자주화운동의 동력을 그렇게 구분하는 까닭은,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은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위와 역할의 일정한 차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반제자주화운동의 동력문제를 획일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은 일면적, 단선적인 생각에 묶이는 것이다.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반제자주화운동의 중심동력은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과업을 수행하는 반제자주화운동의 보조동력은 남(한국)과 해외의 민족민주전선역량에서 나온다. 남(한국)과 해외의 민족민주전선역량이라고 했지만, 이 글의 주제가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보조동력을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역량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은 남(한국)과 해외의 민족민주전선역량에 비할 바 없이 강대하기 때문에 반제자주화운동의 중심동력으로 된다.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역량은 모두 반제자주화운동을 추진하는 민족주체역량이지만, 그 역량의 강대성에서 현격한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지위와 역할에서 일정한 차이를 지니고 있으므로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으로 구분되어 배치될 수밖에 없다.

남북해외의 반제자주화운동의 동력들이 그 지위와 역할에서 어떠한 특징을 지지고 있으며 어떻게 구별되고 또 결집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지난 9월 18일에 작성하여 전국연합의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에 제출한 특강원고 ≪조 · 미 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에 미흡하나마 내 생각의 일단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시 논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이 수행되는 경로를 생각해보자. 현 시기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은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는 반미자주화운동으로 수행되고 있다. 한(조선)반도에서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일차적인, 당면한 투쟁은 남북해외의 반제자주역량이 힘을 합쳐 주한미군을 철퇴시킴으로써 조 · 미 관계와 한 · 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이 당면 투쟁에서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은 위태롭고 불안정한 기존의 정전체제를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로 대체함으로써 조 · 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비적대적 관계로 바꾸고 그에 따라 남(한국)에서 미군을 철퇴시키려고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북(조선)에 대한 적대 · 말살책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진배치해놓은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첨병이며 동시에 남(한국)에 대한 지배 · 수탈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을 철퇴시키는 것은 북(조선)을 적대 · 말살하려 하고 남(한국)을 지배 · 수탈하는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을 제거하는 것으로 된다. 가장 강력한 물리력을 제거하면 제국주의자들이 붙들고 있는 나머지 물리력은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 현 단계의 반미자주화운동이 주한미군 철퇴운동에 자기의 동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조선)의 강력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자기를 적대 · 말살하려는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첨병(주한미군)을 철퇴시키면 그것은 남(한국)을 지배 · 수탈하는 가장 강력한 물리력을 제거하는 것으로 되고, 그 물리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친미예속체제는 자동적으로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분명하며 그 체제에 의해서 육성되고 존속되는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도 크게 약화 ·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은 반미자주화운동을 결정적인 승리국면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점도 또한 분명해진다.

자주적민주정부를수립하는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은 민주강령에 의하여 규정된다. 지금 민족민주전선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민주강령이 제기하는 민주주의의 성격문제를 해명해야 한다.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전략적 과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어떠한 성격의 민주주의인가?

남(한국)에서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을 한꺼번에 완수하면 더 없이 바람직하겠으나, 현 시기 친미예속적이고 반민주적인 집권세력과 민족민주전선 사이의 역량관계를 살펴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확정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그 전략적 과업은 민족민주전선이 설정하는 두 개의 연속적인 단계, 곧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로 구분되어 수행될 것이다. 단계적 수행을 말할 때, 우리는 그 두 단계가 분절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속적인 두 단계란 일반 민주주의라는 낮은 단계와 민중 민주주의라는 높은 단계를 의미한다. 민중 민주주의를 북(조선)에서는 인민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해방 직후에 북(조선)에서 수행한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불렀다. 일반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의 두 단계를 넘어선 최고 단계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인데, 이것은 현 시기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해야 할 전략적 과업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는다.

지난 1980년대까지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은 다른 나라의 민족민주전선에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처럼,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에서 제기된 민주주의의 개념을 단일한 내용으로 파악하면서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전략적 과업으로만 이해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변화 · 발전된 정세에 맞게 그 개념을 두 가지로 가려보면서 그 내용을 일반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민중 민주주의 이전의 선행단계로서 일반 민주주의를 설정한 까닭은 무엇인가?

전자본주의적 계급관계가 지배적이었던 지난 시기에는 민주강령을 실현하는 변혁의 과정을 구태여 두 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북(조선)의 경우, 항일혁명의 불길 속에서 강인하게 단련된 주체역량이 자기의 주위에 전체 근로대중의 민주변혁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었고, 바로 그러한 강력한 주체역량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1945년 직후의 전자본주의적 계급관계를 개조 · 변혁하는 민중 민주주의 혁명을 급속도로 수행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 북(조선)의 혁명역량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 · 발전시켜 1970년대에는 마침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1990년대 이후의 남(한국)사회는 자본주의적 계급관계가 지배적이고 고착된 자본주의 사회로 변동하였을 뿐 아니라, 남(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를 개조 · 변혁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할 주체역량(민족민주전선역량)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민주강령을 실현하는 변혁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이 당면해서 수행해야 할 민주강령의 전략적 과업은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 곧 일반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물론 일반 민주주의의 실현은 한층 더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 곧 민중 민주주의에 앞선 선행단계로서, 또는 친미예속적 반민주체제를 민중 민주주의체제로 개조 · 변혁하는 중간과정으로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은 자명하다.

(내일 계속)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2001년 10월 19일